# 금수강산

2

주체104(2015)

루계 제306호 월간

 ISSN 1727—9062

# 철령아래 사과바다

흥취나게 (♩=142)

작사 차호근
작곡 안정호

2. 철쭉꽃 핀 철령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에
천만송이 사과꽃이 움터나는 청춘과원
장군님의 해빛같은 미소속에 만발하여
원수님의 은정속에 원수님의 은정속에
열매되여 주렁졌소

3. 사과바다 물결우에 춤을 추는 갈매기냐
사과따는 처녀들의 꽃수건도 한들한들
천지개벽 노래하는 선군세월 새 풍경아
고산땅이 꺼지도록 고산땅이 꺼지도록
과일대풍 안아오세

4. 철령아래 과일향기 차고넘쳐 목이 메냐
이 절경을 펼친 은덕 사무쳐와 목이 메네
장군님의 인민사랑 원수님이 꽃펴주신
예가 바로 부흥하는 예가 바로 부흥하는
내 조국의 모습일세

# 차 례

예술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의 촬영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68(1979)년 3월

좌담회

# 주체예술의 전성기를 펼쳐주시여

참가자
오영식: 문화성 국장
김흥기: 국립연극단 부단장
홍영희: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배우
조청미: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교원
변진혁: 기자

기자: 우리는 이제 머지 않아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광명성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각색한
혁명가극 《피바다》의 한 장면

오늘 여러분과 자리를 같이한 기회에 주체적 문학예술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주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영식: 생각할수록 가슴뜨거워짐을 금할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체예술이 시대를 선도하고 천만군민의 심장을 격동시키며 새로운 위훈과 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게 된데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입니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문학예술의 여러 형태에 옮기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돌파구를 영화예술로 정하시고 여기에서 이룩된 성과를 문학예술전반에 일반화하도록 하시였습니다.

홍영희: 지금도 그이의 세심한 지도속에 예술영화 《꽃파는 처녀》를 완성하던 때의 일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영화의 대본완성으로부터 배우들의 연기와 의상, 소도구, 음악형상을 비롯하여 영화의 전반에 그이의 심혈과 로고가 깃들지 않은것이 없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어떤 때에는 대본이 원작에 충실하도록 창작가들을 일깨워도 주시였고 어떤 때에는 배우들의 기량발표회도 지도해주시였으며 때로는 하나의 장면완성을 위해 여러차례의 가르치심도 주시였습니다.

당시 신인배우인 저로서는 순진하고 소박한 꽃분이의 역을 수행하자니 애로가 많았습니다.

제가 안타까움에 모대길 때 그이께서는 짚신는 방법도 배워주시고 산에서 나물을 뜯을 때에는 손으로만 하지 말고 칼로도 뜯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의 생활풍습까지 하나하나 일깨워주시였습니다.

그이의 정력적인 지도는 영화의 장면장면에도 깃들어있습니다. 작업필림단계에서 어머니가 지주놈에게 매맞아 죽는 장면을 보신 그이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꽃분이가 빚값으로 술집에 팔려가게 된다는것을 알게 된 어머니가 억이 막혀 죽는것으로 처리하도록 하시였고 꽃분이와 순희가 어머니의 약을 구한 기쁨의 감정이 어머니가 돌아가는 장면과 극적인 대조를 이루게 하는 등 영화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시였습니다.

그이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해 영화는 짧은 기간에 완성되게 되였고 1972년 제18차 까를로비 와리국제영화축전에서 특별상과 특별메달을 수여받았습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를 각색한
조선예술영화 《꽃파는 처녀》의 한 장면

기자: 영원한 생명력을 지니고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더더욱 만사람의 심장을 격동시키는 혁명가극 《피바다》, 《꽃파는 처녀》 등 5대혁명가극도 그이의 비범한 예지와 예술적천품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고 봅니다.

그이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가극으로 옮기는 과정에 가극의 기본형상수단인 노래를 절가화하고 가극에 방창을 널리 도입하도록 하시였으며 무용을 극과 밀착시키고 립체화된 흐름식무대를 창조하시였습니다.

조청미: 그렇습니다. 저도 한동안 가극의 녀주인공역을 맡아 수행한적이 있어 잘 알고있지만 매 곡조들마다에도, 관중을 끌

불후의 고전적명작 《성황당》을 각색한
혁명연극 《성황당》의 한 장면

없는 신비경에로 이끌어가는 무용과 무대조명에도 그이의 예지와 심혈이 깃들어있습니다.

혁명가극 《피바다》 1장에 나오는 마을청년들의 노래는 9차례에 걸쳐 50여곡, 2장에 나오는 어느 한 2중창은 7차례에 걸쳐 90여곡, 3장에 나오는 어느 한 노래는 6차례에 걸쳐 무려 100여곡을 검토하고 골라내여 절가로 다듬어주시였으니 그이의 그 정력적인 지도의 낮과 밤을 어찌 한두마디의 말로 다 이야기할수 있겠습니까.

하기에 혁명가극 《피바다》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우리 인민들과 세계 인민들로부터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혁명가극 《피바다》, 《꽃파는 처녀》 등 5

**김일성**상계관작품 경희극 《산울림》의 한 장면

대혁명가극이 수십년세월이 지난 오늘에도 커다란 감화력을 발휘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문학예술의 거장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와 현명한 령도의 결과입니다.

김흥기: 우리 연극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연극부문에는 의연히 서유럽나라 연극의 낡은 틀이 고질적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러한것으로 하여 연극예술은 조락의 운명에 처하게 되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그이께서는 영화혁명, 가극혁명의 성과에 토대하여 연극혁명을 일으키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성황당》을 혁명연극의 첫 본보기작품이 되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기자: 저도 창조 초기 배우들이 풍자극이라고 하여 생활론리를 무시하고 무턱대고 웃기려고만 한 일이며 주인공의 성격적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여 주인공이 부정을 조소하고 폭로하게 되는 과정이 잘 납득되지 않게 극이 설정되여 긍정인물들이 오히려 부정인물들에게 눌리우게 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흥기: 옳은 말입니다. 창조현장에 몸소 나오시여 배우들의 연기형상을 보아주신 그이께서는 풍자극이라고 하여 웃음으로만 관통되여야 한다는 법은 없다, 풍자극도 생활의 론리를 따라야하며 이것은 작품의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담보라고 하시면서 풍자극도 생활의 론리에 따라 웃음도 있고 사색도 있게 끌고나가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이밖에도 일찌기 연극력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무선마이크를 도입하여 귀속말까지도 생생히 전달함으로써 생활을 진실하게 형상할데 대한 문제, 음악을 성격형상의 수단으로, 극흐름의 공간을 없애고 극적감흥과 정서를 지속적으로 안겨주는 수단으로 받아들여 연극을 시대적미감에 맞게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 흐름식립체미술을 연극의 특성에 맞게 도입하여 현실을 그대로 보는것처럼 펼쳐보일데 대한 문제 등 새로운 혁명연극 창조와 관련된 문제들을 세심히 밝혀주시였습니다. 그후 그이께서는 혁명연극 《성황당》을 무대에 올린 경험에 기초하여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인 《혈분만국회》, 《딸에게서 온 편지》, 《3인1당》, 《경축대회》를 련이어 《성황당》식 혁명연극으로 훌륭히 형상하도록 하심으로써 연극혁명의 성과를 더욱 심화발전시키시였습니다.

기자: 참으로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예술의 모든 부문에서 전례없는 변혁이 일어났으며 년대기들마다에 시대정신을 반영한 좋은 작품들을 내놓을수 있었습니다.

일동: 그렇습니다.

김흥기: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마련하신 《성황당》식혁명연극의 창조전통이 있어 연극예술은 자기 발전의 길을 성과적으로 걸어올수 있었습니다.

《성황당》식혁명연극들을 창조하는 나날에 우리 창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만경대혁명일가분들의 혁명활동력사를 서사시적화폭으로 보여주는 혁명연극들을 창조하였습니다.

혁명연극 《소원》, 《조국산천에 안개 개인다》, 《승리의 기치따라》, 《백두산의 녀동지》… 그리고 《산울림》, 《오늘을 추억하리》와 같이 선군시대 문학예술을 대표하는 기념비적걸작들도 창조되였습니다.

홍영희: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지난 세기 70년대와 80년대에 이어 90년대에 민족의 운명문제를 다루는 영화를 만들도록 하시여 영화예술부문에서 또 한번 전환이 일어나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민족의 운명속에 개인의 운명도 있다는 심오한 철학적깊이를 가진 다부작예술영화《민족과 운명》이 만들어지게 되였습니다.

조청미: 그이께서 주체예술에 쌓으신 업적은 영화나 연극, 가극에 국한된것이 아닙니다.

그이께서는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과 정서에 맞는 민족적이고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음악을 발전시키시기 위하여 음악에서 우리의 고유한 민족적선률을 옳게 살리며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노래를 유순하고 부드럽게, 인민대중이 리해하기 쉽게 만들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방사포의 일제사격과도 같은 공훈국가합창단의 힘찬 노래로 천만군민을 강성국가건설위업수행에로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뿐만아니라 무용예술에서 민족적특성을 옳게 살려 우리 인민의 생활감정과 현대적인 미감에 맞는 무용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도록 이끄시였습니다.

오영식: 위대한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영화예술론》, 《음악예술론》, 《미술론》, 《무용예술론》, 《주체문학론》은 오늘 우리 주체예술을 새로운 비약과 앙양에로 불러일으키게 한 강령적문헌입니다. 주체예술의 전성기를 펼쳐주시고 우리 시대 문학예술의 참다운 본보기를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이 있어 우리 인민은 주체의 문학예술을 더욱 활짝 꽃피우며 이 땅우에 사회주의문명국을 일떠세울것입니다.

기자: 오늘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 고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 * *

일 화

# 누구도 따를수 없다

어느 한 기회에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자신의 첫사랑은 음악이라고 하시였다. 바로 그러한 분이시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70년대에 벌써 우리 나라 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열어놓으시여 세상사람들 누구나가 20세기 문예부흥이라고 격찬하여마지 않는 기적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우리 나라 민족악기들이 개량완성되여 민족관현악이 새롭게 발전하던 1970년대 초 어느날이였다.

이날 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예술단체의 민족관현악단을 찾으시고 새로 편곡한 민요곡을 들어주시였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공연이 끝났으나 그이의 안색은 그리 밝지 못하시였다. 지휘자는 물론 연주가들도 영문을 몰라하는데 그이께서는 사색깊은 어조로 다시한번 연주해보라고 이르시였다.

이윽고 연주가 끝나자 장군님께서는 민족관현악편성에 와공후(민족관현악에서 분산화음과 리듬을 담당하고있던 악기)를 넣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며 와공후를 대신할수 있는 새로운 악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당시 이 악기는 여러가지 제한성으로 하여 민족음악의 보다 높은 형상적요구를 실현하지 못하였다. 그때 거의 모든 민족악기들이 개량되여 민족관현악이 세계에 명성을 떨치고있던 때였던것만큼 전문가들도 와공후의 이러한 약점에 주의를 돌리지 않고있었다.

신비한 음감을 지니고 대번에 그 약점을 꿰뚫어보시며 퇴치방법과 개선대책을 명철하게 밝혀주시는 그이의 비범성에 전문가들도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러는 그들에게 장군님께서는 새로 만드는 악기는 와공후의 기능만이 아니라 가야금의 역할도 수행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제작방향과 방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하지만 아름답고 우아한 민족적음색이 보장된 새 악기를 만들어내는 일은 결코 순조롭게 진척되지 않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악기제작자들과 연구사들이 새 악기연구에서 고충을 겪고있을 때에는 와공후를 눕혀놓고 제작하도록 하시였고 새 악기가 완성된 다음에는 친히 악기의 선률을 들어보시고 새 악기도 가야금처럼 롱현(울림의 다양한 변화를 위한 연주기법의 하나)을 할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깨우쳐주시였다.

주체62(1973)년 8월 새 악기는 드디여 완성되였다.

장군님께서는 친히 새 악기에 《옥류금》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시였다.

새로운 민족악기 옥류금은 바로 이렇게 세상에 태여나게 되였다. 구슬같이 맑은 소리와 풍만한 음량, 민족적색채와 정서로 독특한 민족악기 옥류금은 민족의 또 하나의 귀중한 문화적재보로, 커다란 자랑으로 후세에 길이 전해지게 된것이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이시야말로 예술의 천재, 창조의 영재이시며 누구도 따를수 없는 신비한 음감을 지니신 음악예술의 거장이시였다.

* * *

# 미술발전의 앞길을 밝혀주시여

민족최대의 명절인 광명성절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나는 만수대창작사에 나오시여 주체미술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던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못 견디게 그리워지군 한다.

주체62(1973)년 8월 우리 만수대창작사에 대한 첫 현지지도로부터 시작하여 생애의 마지막해까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러차례나 창작사에 나오시여 미술창작활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인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그 나날속에는 주체100(2011)년 1월 22일도 있다.

그날 그이께서는 창작사에 나오시여 전시된 조선화, 유화작품들을 보아주시였다.

가는 선과 채색으로 정교하고 섬세하게 묘사한 세화기법을 비롯한 전통적인 조선화기법을 살린 작품들인 《체리도마도풍년》, 《희천의 숨결》, 《범》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며 아주 잘 그렸다고 못내 기뻐하신 그이께서는 조선화 《주체철완성을 위해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한평생 주체철완성을 그토록 바라시던 수령님의 념원이 뜨겁게 되새겨지는듯 생각깊은 표정을 짓고 서계시던 장군님께서는 그림을 정말 잘 그렸다고 교시하시였다.

창작가들의 미숙한 작품을 두고 높은 평가를 주시는 그이를 우러르는 나에게는 조선화발전을 위해 기울여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가 다시금 되새겨졌다.

돌이켜보면 그이께서는 1970년대에 벌써 비범한 예지와 예술적안목으로 조선화에서는 색을 연하게 하는것보다 진하게 하여 색형상에서 생동성을 보장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고 조선화 《강선의 저녁노을》과 같은 시대의 명작들이 훌륭히 창작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조선화를 주체미술의 기본형식으로 규정하시고 채색화로 발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주체적 미술리론을 제시하신 그이께서는 아름답고 고상한 조선화의 특징을 살리는데서 나서는 문제들도 밝혀주시였다.

그리고 조선화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는데서 오랜 전통을 잘 연구하고 그에 토대하여 현실을 그리는 문제, 함축과 집중의 원리에 기초하고있는 조선화의 여러가지 기법에 정통하는 문제, 구도와 필치를 살리는 문제 등 현대조선화발전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여주시였다.

그이의 세심한 가르치심이 있어 오늘 조선화는 민족의 만년재보로 빛을 뿌릴수 있었다.

이 나날 조선화 《항일의 혈전만리》와 《칠보산의 가을》을 비롯하여 사상예술성이 높은 수백편의 국보적작품들과 명작들이 창작되여 민족의 존엄을 온 세상에 떨치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그가운데서 조선화 《봉산탈춤》, 《통일무지개》를 비롯한 수많은 작품들은 다른 나라에서 진행된 박람회, 전람회들에서 최우수상을 수여받았다.

오늘 현대조선화의 비약적인 발전모습을 보여주는 우수한 작품들은 주체미술의 보물고를 더욱 풍만하게 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화뿐아니라 유화, 조각, 보석화, 서예, 수예, 공예를 비롯한 모든 미술작품창작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여 오늘 우리의 미술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끊임없이 발전해나가고있다.

그이의 품속에서 수많은 **김일성**상, **김정일**상계관인, 로력영웅, 인민예술가, 공훈예술가들이 배출될수 있었다.

나는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유훈대로 우리 창작가들이 인민의 지향에 맞는 훌륭한 미술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도록 본분을 다해나가겠다.

만수대창작사 부사장 김성민





# 오늘도 그 사랑에 목메인다

세월의 흐름은 나의 마음을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더욱더 적시게 하고있다.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덕성에 대한 글을 세상에 냈지만 그이의 믿음과 사랑속에 성장해온 예술인으로서, 일군으로서 아직도 력사앞에 할바를 다 못했다는 생각에 나는 다시금 붓을 들게 되였다.

돌이켜보면 우리 예술인들의 사업과 생활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손길이 어려있다.

우리 연극예술부문만 놓고보아도 일찌기 그이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을 우리 시대의 연극무대에 올리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여 오래동안 침체상태에 있던 연극예술의 운명을 구원해주시였다. 그리고 늘 연극창조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시대의 요구에 맞고 인민들이 좋아하는 우리 식의 연극들을 훌륭히 창조하도록 작품의 종자를 바로잡는 문제로부터 극구성과 연출, 배우의 연기와 연극음악에 이르기까지 걸음걸음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지금도 그이의 생애의 마지막해인 4년전의 일을 잊을수 없다. 그때 장군님께서는 선군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우리 연극단에서 새로 창작한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공연을 보아주시고 모든 형상요소들이 다 손색이 없는 명작중의 명작, 선군시대 문학예술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기념비적걸작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리고 우리 연극예술인들에게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사실 그 작품은 극조직과 인간관계를 엮는 문제, 무대에 생활을 현실그대로 진실하게 펼치는 문제, 대사를 통속적이면서도 뜻이 깊게 쓰는 문제 등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밑에 창작된것이였다.

우리 나라 연극예술발전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작품도 지도해주시고 많은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발표하시여 우리들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도 연극창조에서 성과를 거둘 때면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내세워주시는 그이의 사랑은 참으로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연극배우들이 공연활동과 생활에서 불편이 있을세라 수도의 중심부에 훌륭한 극장과 현대적인 고층살림집들을 새로 짓도록 해주시고 살림집이 완공되였을 때에는 배우들의 가정을 찾으시여 새집들이까지 축하해주신 그이의 웅심깊은 정이 우리 예술인들모두의 가슴속에 피줄처럼 새겨져있다.

지금도 나는 장군님이 그리워질 때면 집에 모셔져있는 기념사진들을 바라보군 한다. 거기에는 내가 그이를 모시고 찍은 사진들이 있다. 언제나 해빛같은 미소를 지으시고 금시라도 우리들을 한품에 안아주실것만 같은 장군님의 영상을 우러를 때면 그이의 품속에서 성장해온 나의 지난날이 가슴뜨겁게 돌이켜진다.

그이께서는 나라의 전반사업을 돌보셔야 하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평범한 나의 배우생활을 세심히 관심해주시며 때로는 시랑송훈련도 지도해주시였고 때로는 역형상에서 나타난 결함도 지적해주시며 연극배우는 말을 잘하는 재사가 되여야 한다고 걸음걸음 이끌어주시였다. 바로 그이의 크나큰 믿음과 다심한 손길이 있었기에 나는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로동계급편)에서 진응산역을 비롯하여 많은 예술영화와 연극, 텔레비존련속극의 주역형상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었다.

정말 장군님의 사랑은 따사로운 해빛이였고 우리 삶의 귀중한 자양분이였다.

하기에 나는 오늘도 그 사랑에 목메이며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마음을 적시고있다.

나는 앞으로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받드는 길에서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와 같은 명작창작에 온넋을 바치겠다.

국립연극단 단장 리지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3돐 중앙추모대회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 강산에 차넘치는 절절한 그리움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만지는것이 그리움인가 싶다.

지금도 조국인민들은 강산에 내리는 흰눈을 바라보며 그리움속에 설레이고있다. 그 흰눈은 4년전 12월 17일 현지지도의 달리는 렬차에서 순직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서거소식이 너무도 절통하여 하늘이 뿌리던 눈물이여서, 조국인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장군님의 령전에 드리던 추모의 흰꽃이여서 사람들 누구나 흰눈을 소중히 여기며 그이를 절절히 그리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거하신지 3년이 되였던 지난해 12월에도 조국강산에 흰눈이 많이 내리였다. 그 찬눈바람이 부는 속에서도 조국인민들의 마음은 그리움으로 뜨거운 격정속에 휩싸여있었다.

12월 17일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수많은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3돐 중앙추모대회가 엄숙히 거행되였다. 참가자들은 천재적인 예지와 선견지명으로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을 찬란한 미래에로 이끌어오시였으며 강철의 신념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민족사와 인류정치사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장군님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가 있었기에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혁명의 명맥이 끗끗이 이어지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게 되였으며 력사의 온갖 풍파속에서도 사회주의위업이 빛나는 한길을 걸어올수 있었다고 격정을 토로하였다. 그리고 장군님에 대한 영원한 충정의 마음을 안고 조국의 강성국가건설과 통일을 위한 길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장군님의 유훈을 끝까지 실천해나갈 굳은 결의들을 다지였다.

절세위인에 대한 그리움이 흐르는 속에 평양은 물론 각 도, 시(구역), 군, 련합기업소들에서 추모대회, 추모회가 진행되였으며 회고음악회 《위대한 한생》을 비롯하여 회고무대, 결의모임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졌다.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나라의 곳곳에 높이 모셔진 장군님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아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추모하여

중앙미술전시회 진행

회고음악회 《위대한 한생》의 한 장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 왕청문의 교훈

(전호에서 계속)

그러나 나는 미리부터 몸을 피할 생각은 없었다. 내가 국민부에 해를 끼친것도 없는데 그들이 감히 나를 잡아가겠는가 하는 배심이 있었던것이다. 공산주의선전을 한다고 현묵관이 나를 문제시한다는것도 말이 되지 않았다. 내가 공산주의운동을 한다는것은 길림에 있는 민족주의자들이 다 알고있었다. 물론 현묵관도 얼마간 한지붕아래서 같이 살았으니 이것을 짐작하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체포한다는것이 무슨 소리인가. 우리는 국민부를 타도하자는것도 아니고 새 사상에 기초해서 모든 조선청년들이 단결하자고 호소했는데 그것이 박해의 리유로 될수 있겠는가.

나는 필요한 경우 국민부의 간부들과 담판이라도 할 배짱이였다. 내가 강홍락의 집에 돌아오니 오신애가 어데 나갔다 들어와서 불길한 소식을 또 전해주었다. 국민부군대들이 최봉을 비롯한 몇명의 대회준비위원회성원들을 벌써 체포해갔다는것이였다. 오신애는 나도 그들이 찾고있는 대상들가운데 한 사람이니 빨리 몸을 피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격분을 참을수 없었다. 우리는 왕청문에 온 첫날부터 남만청총대회를 민족주의자들과의 통일전선을 성사시키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 만들려고 여간 애를 쓰지 않았다. 대회의 결의안도 그런 방향에서 만들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부의 상층은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테로로써 대답하려는것이였다.

나는 국민부에서 청년사업을 책임진 고이허를 찾아가 담판을 하려고 마음먹었다. 차광수도 국민부의 비행에 대한 소식을 얻어듣고 몇명의 반제청년동맹원들과 함께 강홍락의 집으로 달려왔다.

그들은 국민부의 습격대상인 대회준비위원회성원들이 우선 왕청문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신변이 위태롭다고 해서 몸을 피할수는 없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들의 목적이 이루어질수 없게 된 지금 남은 방법은 국민부의 테로분자들과 담판을 하여 우리의 정당한 립장을 밝히는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민족주의자들과의 합작을 이룩하자면 언제든지 한번은 속을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어보아야 하였다. 비록 분위기는 살벌하였지만 지금이야말로 그런 기회라고 할수 있었다. 체포된 동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그들을 꼭 만나야 하였다. 그것도 내가 가야 했다.

나는 동무들을 설복한 다음 차광수에게 뒤일을 부탁하고 고이허를 찾아갔다.

고이허는 국민부의 보수파가운데서도 가장 경향이 나쁜 사람이였다. 민족주의진영에서는 《리론가》로 소문난 인간이였다. 내가 방에 들어서자 그는 당황해서 어찌할바를 몰라하였다. 내가 자기를 찾아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것 같다.

나는 고이허에게 최봉을 비롯한 대회준비위원회성원들을 왜 체포하였는가고 직방 들이댔다. 고이허는 자기들도 지금 그들의 행처를 찾는중이라고 시치미를 뗐다.

나는 앞뒤가 다른 고이허의 태도에 더욱 분격을 금할수 없었지만 될수록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를 설복하려고 하였다.

국민부는 청년운동을 통일한다고 회의를 소집했는데 회의에서 청년들의 토론을 들어보기도 전에 결의안초안을 보고 질겁하여 대표들을 체포했으니 이것은 너무 조급하고 독선적인 행동이다, 대회문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위원들을 체포했다고 하는데 어느 대목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말해달라, 초안인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치자, 당신들이 대회주최자인것만큼 마음에 들지 않는 대목이 있으면 청년들을 불러서 의논을 해야 옳지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붙들어가면 어떻게 마음놓고 새 사조를 섭취할수 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견결한 반일투사로 자라날수 있겠는가고 들이댔다.

고이허는 청년들이 지나치게 나가는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했을뿐 체포에 대해서는 정말 알지 못한다고 또 거짓말을 하였다.

나는 고이허에게 당신도 서울에서 학생운동을 한 일이 있고 일경들의 체포를 피해 쏘련으로 가려던 사람이니 공산주의가 어떤 사조이고 그것이 어느 정도로 세계에 전파되고있는가 하는것을 모르지 않을것이다, 지금 혁명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치고 공산주의에 대한 리해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나자신만 해도 그렇다, 나로 말하면 독립운동자들이 설립한 화성의숙에 다니였고 길림에 와서도 독립군지도자들의 집에서 3년을 보냈다, 이런 나도 민족주의운동을 하게 된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운동을 하게 되였다, 우리 청년들이 새 사조를 신봉하는것은 공산주의리념을 따르는 길이 조국의 광복을 앞당기는 길이고 우리 민족의 장래에 행복을 가져오는 길이라는것을 굳게 믿기때문이다, 당신들도 조국의 독립을 위한 싸움에 나선 사람들인데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뛰여다니는 청년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체포한다는것이 말이 되는가고 항변하였다.

그리고는 고이허에게 새 사조를 따르는 청년들을 박해할것이 아니라 손을 잡고 일제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간곡하게 말했다.

사실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청년들을 제껴놓으면 남만청총자체가 존재할수 없는 형편에 있었다.

고이허는 코웃음을 치면서 국민부는 남만청총을 내던지면 내던졌지 공산당의 손에 넘겨줄수 없다고 하였다.

내가 그 리유를 물으니 그는 반석현에서 엠엘계의 종파분자들이 몽치단이라는 테로단을 무어가지고 민족주의자들을 습격한 사실을 실례로 들면서 이런 자들과 어떻게 손을 잡을수 있겠는가고 빈정거렸다.

우리도 1929년 여름에 엠엘파의 몇몇 인물들이 삼원포일대에서 민족주의자들을 타도하려고 국민당군벌의 경찰에 조선의 독립운동자들이 반란을 기도한다는 허위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있었다.

그들은 민족주의자들과의 통일전선을 주장하는 우리들까지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몽치단을 동원하여 반제청년동맹간부들을 습격하는 망동까지 부리였다. 류하일대의 반제청년동맹원들이 최창걸이 지도하는 무장소조의 호위를 받아가면서 활동하게 된것도 이 몽치단의 폭행때문이였다.

나는 고이허에게 우리는 그런 종파쟁이들과는 전혀 다른 청년들이라고 다시 설복하였다. 그들은 민족주의자들과 싸울뿐아니라 우리와도 싸우고 자기들 호상간에도 파벌을 형성해가지고 끊임없는 싸움을 하고있는 추물들인데 그런자들과 우리를 한저울에 올려놓으면 안된다고 력설하였다.

그러나 고이허는 나의 성의있는 설복을 끝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만일 당신들이 끝끝내 청년들의 기세를 꺾으려든다면 씻을수 없는 죄악을 력사에 남기게 될것이다, 당신들이 비록 몇명의 육체는 억제할수 있을지 몰라도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청년대중의 사상은 억제할수 없을것이다, 좋다, 당신네가 나를 죽이겠으면 죽이라, 나는 이미 죽을 각오가 되여있다고 경고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은 동포사회에서도 뜨겁게 굽이쳐 흘렀다. 일본, 중국, 로씨야 등 세계 각지에서 사는 해외동포들은 장군님의 서거 3돐에 즈음한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면서 장군님을 민족의 영원한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애국애족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나갈 마음들을 가다듬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올린 편지에서 이렇게 심정을 터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심장은 비록 고동을 멈추었으나 대원수님의 거룩한 존함과 자애로운 영상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되여있을것이며 대원수님의 성스러운 혁명실록과 불멸의 혁명업적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본사기자 조선일

---

상식

## 장수과일-호두

호두 100g에는 단백질 15~20g, 지방 65~75g, 식물성섬유 5~6g이 들어있으며 그밖에도 칼시움, 린, 철, 칼리움, 마그네시움, 아연, 망간, 비타민 A, C, E 등이 들어있다. 영양학적가치로 보면 1Kg의 호두는 5Kg의 닭알과 맞먹는다.

호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성장발육을 촉진시키고 머리를 좋아지게 하며 눈을 밝게 하는 작용을 한다.

젊은이들이 호두를 정상적으로 먹으면 몸매가 고와지고 피부에 윤기가 돌며 중로년기 사람들이 늘 먹으면 심장과 페의 기능이 좋아지고 기억력이 높아진다.

#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것을 호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체104(2015)년 1월 1일 새해에 즈음하여 신년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다함없는 충정의 마음을 담아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주체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새해의 인사를 삼가 드리신 다음 지난해에 이룩된 성과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지난해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최후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조선의 불패의 위력을 떨친 빛나는 승리의 해였다.

지난해에 조선로동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가 보다 굳건해지고 혁명대오의 순결성과 위력이 더욱 강화되였다.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날을 따라 강렬해지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갈 열화같은 충정과 순결한 도덕의리심이 높이 발현되였으며 조선로동당의 인민사랑, 후대사랑의 정치와 과학중시, 교육중시정책이 현실에 구현되여 당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가 두터워지고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이 공고화되였다. 그리고 인민군대의 전투력이 비상히 강화되고 국방력이 튼튼히 다져졌으며 군민협동작전으로 사회주의경제강국과 문명국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어려운 환경과 불리한 조건에서도 농업과 수산, 화학, 석탄전선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생산적앙양이 일어나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다. 건설부문에서도 아름다운 리상을 실현해나가는 조선의 모습을 현실로 보여주었으며 체육인들은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들에서 우리 식의 전법으로 굴함없이 싸워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고 사회주의수호전에 떨쳐나선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을 크게 고무해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에 쟁취한 모든 승리와 귀중한 성과들은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애국충정과 헌신적투쟁에 의하여 이룩된 빛나는 결실이라고 하시면서 새해 2015년은 조국해방 일흔돐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라고 말씀하시였다.

백두의 혁명정신과 기상으로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 조국해방과 당창건 일흔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원수님께서는 올해에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원수님께서는 올해에 백두의 넋과 기상을 안고 사상과 총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내 조국의 존엄과 부강번영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사회주의정치사상강국의 불패의 위력을 더욱 강화해나아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이께서는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며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리고 당창건 일흔돐을 맞는 올해에 조선로동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강화하는데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원수님께서는 혁명무력건설과 국방력강화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군사강국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칠데 대한 문제,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고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건설에서 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문제들에 대하여서도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올해의 방대한 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이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인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리고 온 나라에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며 더욱 빛내여나가는 애국헌신의 기풍이 차넘치게 하며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이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기수, 전위투사가 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분렬된 때로부터 70년세월이 흘렀다고 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그동안 세계는 멀리 전진하고 시대는 크게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는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안타까운 일이며 누구나가 다 통분할 일입니다. 세기를 이어오는 민족분렬의 비극을 이제 더이상 참을수도 허용할수도 없습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중대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내외반통일세력의 방해책동으로 하여 응당한 결실을 보지 못하였으며 북남관계는 도리여 악화의 길로 줄달음쳤습니다.

우리는 비록 정세가 복잡하고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어도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필생의 념원이며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하고 이 땅우에 존엄높고 부흥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워야 합니다.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 이것이 전체 조선민족이 들고나가야 할 투쟁구호입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환경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지금 남조선에서 해마다 그칠 사이없이 벌어지는 대규모전쟁연습들은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민족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위험을 몰아오는 주되는 화근입니다. 상대방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이 벌어지는 살벌한 분위기속에서 신의있는 대화가 이루어질수 없고 북남관계가 전진할수 없다는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습니다.

침략적인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에 매달리는것은 스스로 화를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그 어떤 도발과 전쟁책동에도 단호히 대응할것이며 징벌을 가할것입니다.

남조선당국은 외세와 함께 벌리는 무모한 군사연습을 비롯한 모든 전쟁책동을 그만두어야 하며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 길로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고 장장 70년간 민족분렬의 고통을 들씌워온 기본장본인인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무분별한 침략책동에 매달리지 말고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북과 남은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시하면서 체제대결을 추구하지 말며 우리 민족끼리리념에 따라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통일문제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순조롭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려 하여서는 언제 가도 조국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없으며 대결과 전쟁밖에 가져올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가 가장 우월하지만 결코 그것을 남조선에 강요하지 않으며 강요한적도 없습니다.

남조선당국은 북남사이의 불신과 갈등을 부추기는 〈제도통일〉을 추구하지 말아야 하며 상대방의 체제를 모독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동족을 모해하는 불순한 청탁놀음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북과 남은 이미 합의한대로 조국통일문제를 사상과 제도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여 끊어진 민족적뉴대와 혈맥을 잇고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와야 합니다.

북과 남이 싸우지 말고 힘을 합쳐 통일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는것은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입니다. 북과 남은 더이상 무의미한 언쟁과 별치않은 문제로 시간과 정력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하며 북남관계의 력사를 새롭게 써나가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뜻과 힘을 합친다면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북과 남은 이미 통일의 길에서 7. 4공동성명과 력사적인 6. 15공동선언, 10. 4선언과 같은 통일헌장, 통일대강을 마련하여 민족의 통일의지와 기개를 온 세상에 과시하였습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립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접촉도 재개할수 있고 부문별회담도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데 따라 최고위급회담도 못할 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대화와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전체 조선민족은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평화를 사랑하고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의 뉴대와 련대성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적극 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하시였다.

*　　*　　*

# 일심단결을 이룩한 당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강철같은 통일단결은 강성국가건설의 생명이고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혁명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오늘 조국에서 일심단결은 혁명의 천하지대본,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위력한 무기로 되고있다. 하기에 조선혁명은 단결로 시작되고 단결의 위력으로 고수되고 전진하여왔다.

우리 식 사회주의사회의 초석이며 강성국가건설의 천하지대본인 일심단결이 있어 조국땅우에는 련이어 눈부신 기적이 펼쳐지고있다.

창전거리, 류경원, 인민야외빙상장, 릉라인민공원,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위성과학자주택지구,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연풍과학자휴양소 등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일떠선 시대를 반영하는 건축물들은 일심단결의 위력에 대하여 다시금 되새겨보게 한다.

항일의 불길속에서 마련된 일심단결의 고귀한 전통은 1950년대 미제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조국을 피로써 사수한 3년간의 전쟁속에서 더욱 불패의것으로 다져졌고 그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였다. 군대와 인민은 대원수님들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일심단결의 힘으로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주의를 수호하였고 평양속도, 80년대속도와 같은 시대어들과 더불어 자랑찬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1990년대 중엽 미제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하고도 끈질긴 반공화국책동속에서도 군대는 인민을 돕고 인민은 원군을 하는 군민대단합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놓고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를 실현하였다.

돌이켜볼수록 흘러온 나날은 당과 수령,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조선로동당의 통일과 단결이 더욱 굳게 다져진 년대와 년대였다.

조선로동당의 통일과 단결, 당과 수령,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존함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그이께서는 당과 혁명의 진두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수령중심의 일심단결을 당의 존망, 혁명의 전도와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보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좌우명이자 자신의 좌우명인 이민위천의 사상을 조선로동당활동의 근본원칙으로 삼으시였다.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절대적지위와 결정적역할을 뚜렷이 밝히시고 전당에 혁명적수령관을 확립하신 분도 위대한 장군님이시고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것을 당건설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우시고 당의 유일사상체계,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도록 하신 분도 장군님이시였으며 동지들사이의 사랑과 의리, 뜨거운 동지애를 곧 단결로 보시고 그것을 더욱 순결하고 공고하게 다져가신 분도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그이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었기에 조선로동당안에는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성, 규률성이 확립되고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한 혁명적동지애가 차넘치게 되였다.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 행동의 통일체가 바로 하나의 사상에 기초하여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면모이다. 하여 온 사회는 하나의 동지의 세계로 되고 인민은 인덕정치, 광폭정치아래 하나로 굳게 뭉치게 되였다.

단결의 힘은 무궁무진하다. 지난해에만 놓고보아도 조국은 극도에 달한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발악적공세를 과감히 물리치면서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마련하였다. 위성과학자주택지구, 연풍과학자휴양소,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평양육아원, 애육원과 같은 현대적인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짧은 기간에 훌륭히 일떠섰고 과학, 교육, 체육, 보건 등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서 큰 전진이 이룩되였다.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지고 비약의 기상이 높이 떨쳐질수 있은것은 일심단결의 위력이 있었기때문이다. 오늘 그 단결의 위력은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새로운 력사적단계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되고있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의 구호를 가슴마다에 간직하고 온 나라의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과 사상과 뜻, 운명을 같이하는 참된 동지, 충직한 전우가 될 드팀없는 맹세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함께라면 기쁨도 슬픔도 시련도 영광이라는 철석의 신념을 간직하고 당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이 있어 오늘 조선로동당은 더욱 위용떨치고있다.

리과대학 교원 정경복





# 인민의 환희

얼마전 내가 가족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으로 갔을 때였다.

궁전입구에 들어서니 금빛찬란한 대원수별이 새겨진 돌대문이 안겨왔다.

금수산태양궁전 돌대문에서 빛나는 대원수별! 그 별을 우러르느라니 저도 모르게 위대한 선군태양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에 젖어들었다.

백두산천출위인이시며 희세의 군사전략가이신 **김정일**장군님께 얼마나 드리고싶었던 대원수칭호였던가. 그러나 인민의 그 지향은 지금으로부터 3년전 광명성절을 앞둔 때에야 비로소 실현되였다.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불면불휴의 선군령도로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칭호를 삼가 수여해드리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온 나라 인민은 환희에 넘쳐 가슴을 들먹이였다. 그러느라니 자신께서는 수령님의 대원수복을 보며 힘을 얻겠다고, 자신의 어깨우에 빛나는 원수별보다 인민들의 가슴에 빛나는 영웅메달이 더 귀중하고 크다고 하시며 자신을 위한 모든것을 굳이 사양해오신 장군님의 모습이 어려와 더욱 마음이 젖어들었다.

그이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흠모의 정을 안고 금수산태양궁전공원의 여러곳을 돌아보며 내가 다시금 새겨안은것은 총대우에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있고 후손만대의 번영이 있다는 선군의 진리, 위대한 선군령장을 높이 모실 때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도 실현될수 있다는 철리였다.

주체혁명위업계승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선군의 총대를 높이 추켜드시고 내 나라, 내 조국을 그 어떤 제국주의침략세력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불패의 정치군사강국으로 다지시여 력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선군령장.

흘러온 력사의 갈피에는 적지 않은 군사가, 장군들에 대한 기록들이 전해지고있지만 총탄 한발 날리지 않고 백전백승하신 령장, 한두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제국주의와의 포성없는 전쟁을 승리적으로 이끄신 위대한 장군님 같으신 전설적위인은 없었다.

일찌기 10대의 젊으신 시절에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 거룩한 발자취를 아로새기신 때로부터 생애의 마지막까지 장군님께서 끊임없이 이어가신 선군장정의 길은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과 대형간첩비행기 《EC-121》사건, 미제의 《특별사찰》소동과 때를 같이하여 벌어진 《팀 스피리트 93》 합동군사연습과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 … 등과 맞서야 하는 길이였다. 그러나 그 대결전을 승리라는 두 글자로만 아로새기시며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를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하고 선군의 위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오시였다.

오늘 우리에게는 백두의 산악과도 같은 필승의 신념과 배짱, 담대한 기상과 담력을 지니시고 선군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또 한분의 령장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금수산태양궁전 돌대문의 대원수별이 그리도 빛난다는것을 가슴에 새기며 나는 걸음을 옮기였다.

본사기자 한신애

# 선군은 변함없는 주체의 길

선군은 혁명의 총대를 제일무기, 확고한 담보로 하여 조선혁명을 자주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전진시켜나가는 리념이고 방식이다.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총대가 노는 역할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총대로 혁명이 개척되고 전진하며 완성된다는 심오한 리치를 력사상 처음으로 천명한 사상이 **김일성-김정일**주의이다.

이 사상은 그 창시가 선언되던 첫 기슭에서부터 장구한 혁명위업수행의 전행정에 선군사상의 위력으로 조선혁명의 승리적전진을 담보하여왔다. 선군사상은 주체사상의 원리와 원칙, 요구를 혁명실천에 구현하기 위한 투쟁의 지침으로 창시되였으며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력사적투쟁속에서 끊임없이 심화발전되여왔다.

조선혁명은 그 개척기로부터 이 독창적인 리념과 방식에 의거하여 총대를 기둥으로 하여 단 한번의 실패나 좌절도 모르고 백전백승의 한길을 걸어왔다.

돌이켜보면 선군은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변함없는 길이였다.

항일혁명투쟁으로부터 3년간에 걸치는 조국해방전쟁,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끊임없는 대결전에서 승리한 력사는 조국이 선택한 선군의 길이 얼마나 정당한 길이였는가를 뚜렷이 보여준다.

우국지사들이 민족개량이나 외세의존, 국채보상이나 청원운동에 매여달리며 나라의 독립을 이룩해보려고 할 때 항일의 선렬들은 강도 일제와 15성상의 피어린 무장투쟁을 벌려 기어이 승리를 이룩하였다. 그들이 안아온 조국의 해방은 바로 혁명의 총대에 기초한 무장투쟁만이 민족해방투쟁의 유일한 출로로 된다는 혁명의 원리에 바탕을 둔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의 열매였다.

1950년대 제국주의련합세력과 민족반역의 무리들이 창건된지 2년밖에 안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침략의 불을 질렀을 때에도 조선이 조국해방전쟁에서 이길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영웅조선은 그 예상에 위대한 승리로 대답하였다. 승리의 7. 27은 명실공히 혁명군대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을 제국주의의 침략무력을 압도하는 강위력한 무기로 내세운 독창적인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의 승리였다.

선군조선은 두차례의 전쟁에서뿐아니라 두차례의 복구건설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도 시종일관 **김일성-김정일**주의가 가리키는대로 혁명군대의 위력과 역할에 의거하여 기적을 떨치고 변혁의 서사시를 엮어왔다.

혁명군대가 단순한 무장집단으로서만이 아니라 혁명을 선도하고 창조와 건설의 기수로 활약해나가고있는 선군조선의 현실은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의 백승의 위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된다.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제시한 사회주의는 선군의 기치높이 자주의 한길을 따라 혁명운동을 전진시켜 달성하여야 할 인민의 아름다운 리상이며 세기적인 꿈이다. 이 리상과 꿈을 실현하는 과학적인 설계가 바로 **김일성-김정일**주의에 의해 펼쳐졌고 사회주의조국땅우에 현실로 구현되고있다.

사회주의조선은 지금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사회주의의 본질적우월성을 최대한 발양시켜 인민의 리상과 꿈이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강위력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변혁과 비약의 전성기를 열어가고있다.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 위성과학자주택지구, 연풍과학자휴양소,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평양육아원, 애육원 등 최근년간 조국땅에 일떠선 기념비적건축물들은 조국인민들이 지녔던 꿈과 리상이 어떻게 꽃펴나고있는가를 현실로 보여주며 군대와 인민이 뭉친 일심단결의 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말없이 증명해주고있다.

군대와 인민의 정신력이 총폭발되고 약동하는 젊음으로 민족사의 최고번영기를 펼쳐나가는 사회주의강성국가의 기치는 의연히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밝힌 선군이다.

참으로 선군사상은 시대발전,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고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과학성과 정당성, 그 견인력과 불패의 위력을 만천하에 힘있게 떨칠수 있게 한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사 리영규



수기

# 정규무력이 건설되던 나날에

뜻깊은 2월 8일을 맞이하게 되니 지금도 정규무력이 건설되던 그날의 감격이 눈앞에 어려와 흥분되는 심정을 금할수 없다. 나라잃은 망국노의 처지가 어떤것인가를 실지 생활로 체험한 사람으로서 나는 한나라, 한 민족에게 있어서 자기의 강력한 군대를 가지는것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뼈에 새기였었다.

그러나 강력한 군대는 바란다고 하여 저절로 가질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한생을 조선인민군 지휘성원으로, 그것도 항공 및 반항공군부대의 지휘관으로 보낸 나에게는 더욱 깊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말이다.

황해남도 삼천군 룡암리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내가 해방〔주체34(1945)년 8월 15일〕을 맞이한 기쁨속에 날과 달을 보내던 어느날이였다. 우리 고향에도 정규무력이 조직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 소식을 듣고 나는 단숨에 보안간부훈련소(당시)로 달려갔다. 그때가 내 나이 스물도 되기전인 주체36(1947)년 4월이였다.

내가 군사복무의 나날을 보내던 어느날 우리는 주체37(1948)년 2월 8일 평양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이 정규적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으로 강화발전되였음을 알리는 열병식이 성대히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였다.

환희에 넘쳐 서로 껴안고 눈물짓던 동무들의 모습을 보는 나에게는 나라가 없었던탓에 학교문전에도 가보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지주집 머슴으로 끌려가 고역살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지난날이 떠올랐다. 그러하던 우리가 이제는 자기의 정규무력을 가지게 되였다고 생각하니 정말 자랑스러웠다. 우리는 새 군복을 입고 새로 제정된 군기앞에서 군인선서를 하였다.

항일무장투쟁의 전통을 이어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골간을 이룬 정규적혁명무력 조선인민군 군인이 되였다는 긍지로 누구나 가슴부풀어있었다.

그로부터 몇달후 지휘부에서는 나에게 이제부터 공부를 해서 비행사가 되여야 한다고 하는것이였다.

(머슴살이로 공부도 제대로 못한 내가 비행기를…)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지휘관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나의 마음을 알았는지 지휘관은 이것은 자기 개인의 의사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 **김일성**장군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그이께서는 로동자, 농민이 주인이 된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아들딸들이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되여야 하며 그런 사람들이 비행사도 되여야 한다고, 공부를 시키면 된다고, 얼마든지 비행기를 조종할수 있다고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하여 나도 조선항공협회의 첫 회장이 되시여 새 조선의 청소한 비행대를 정규적인 항공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시려는 수령님의 손길아래 25교도비행대대(당시)에서 비행훈련을, 그것도 남들같으면 몇년씩 걸린다던 훈련과정안을 2년동안에 마치고 어엿한 비행사로 자라나게 되였다.

이렇게 강화발전된 조선인민군이며 이런 사랑속에 태여난 우리의 항공무력이였다.

명장밑에 약졸이 없고 강군은 명장의 손길아래서만 자랄수 있다는것을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나는 실지 체험을 통하여 절감하게 되였다.

창건된지 2년도 안되는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달려들던 미제를 우리는 보기 좋게 멸망의 구렁텅이에 처박았다.

미제의 수적, 기술적우세를 정치사상적, 전략전술적우세로 타승하여야 한다는 주체적인 전략전술적사상을 제시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뜻대로만 싸운 결과 조선인민군은 하늘과 땅, 바다에서 세계전쟁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게 되였다.

이제는 나도 어언 80고개가 넘었으며 우리를 대신하여 새 세대들이 혁명의 무기, 계급의 무기를 억세게 틀어쥐고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지켜가고있다.

지난해 4월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를 마련하시고 전군의 비행사들을 한날한시에 평양으로 불러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영상을 우러르며 나는 대를 이어 탁월한 천출명장을 모시여 승승장구하는 조선인민군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게 되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강사 공화국영웅 박종식

# 쇠물빛에 붉게 물든 강선

종합조종실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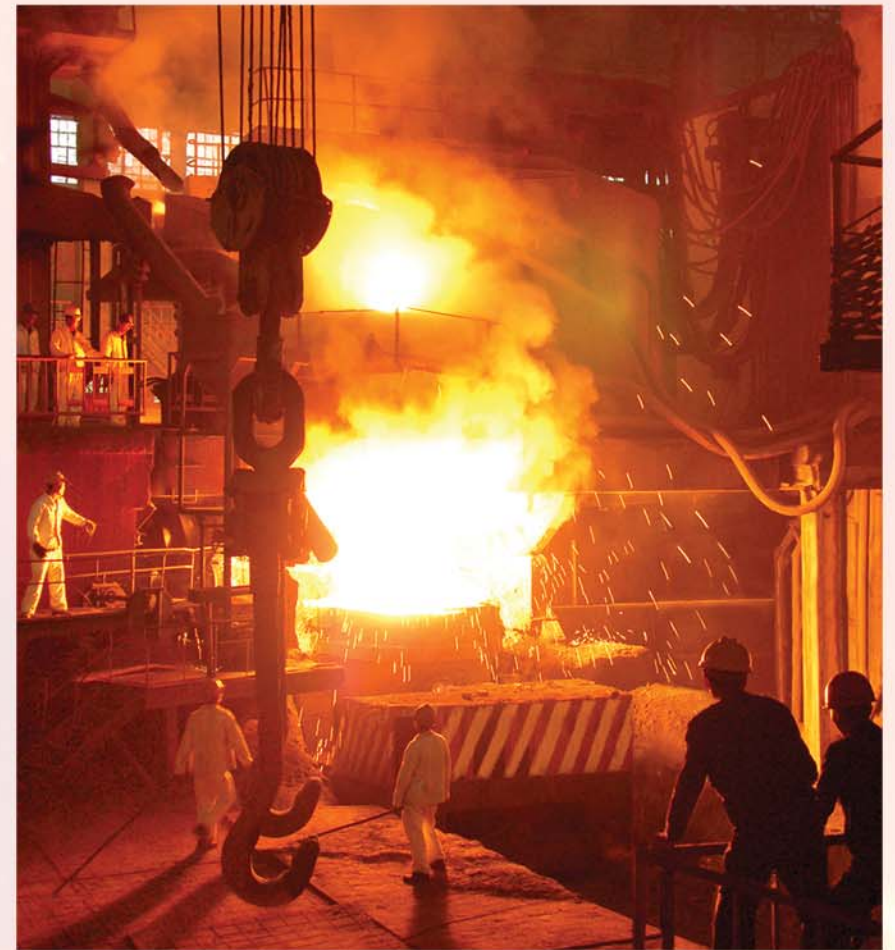
강선 하면 많은 사람들속에서 천리마의 고향으로 불리우고있다. 한것은 수십년전 전후복구건설시기 바로 이곳에 자리잡고있던 강선제강소의 로동계급이 모든것이 어려운 속에서도 천리마를 탄 기세로 생산적앙양을 일으켜 전국의 앞장에 섰기때문이다. 당시 그들은 6만t능력의 분괴압연기에서 12만t의 강재를 생산하는것과 같은 기적을 창조하였다.

그때로부터 세월이 흘러 어제날의 강선제강소는 오늘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로 이름이 바뀌였지만 그 나날의 로동계급이 지니였던 정신은 오늘도 강선땅에 변함없이 흐르고있다.

몇해전 종합적인 첨단기술을 요구하는 성능높은 초고전력전기로를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 강철생산에서 비약을 이룩한 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지난해에만도 강철증산성과로 조국의 강성국가건설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들은 전세대들처럼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를 부시고 제기되는 난관들을 자체의 힘으로 이겨내며 분괴압연기, 1만t프레스, 대형산소분리기, 련속조괴기 등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여 압연강재생산과 그 품종을 늘이였고 강관, 쇠줄 등 2차 금속가공제품들도 많이 생산하였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그 기세는 변함이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올해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그들은 같은 조건에서도 더 많은 철강재를 생산하기 위해 이악하게 노력하고있다. 그를 위해 일군들은 옳은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가지고 전진하는 대중의 앞장에서 달리고있으며 로동자들은 일군들과 마음을 합쳐 설비들의 점검보수를 짜고들고 단위시간당 생산성을 높일수 있는 작업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해 애쓰고있다. 한차지의 쇠물이라도 더 뽑아내기 위해 용해시간을 단축할수 있는 원료와 부원료장입방법을 받아들이고있는 강철직장의 용해공들, 공정간 맞물림을 잘하고 작업반호상간 경쟁으로 생산실적을 나날이 올리고있는 압연공들, 탄광용쇠바줄과 화력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에 필요한 쇠그물 등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계속혁신을 일으키고있는 쇠바줄직장과 연신직장의 로동자들…

위훈과 창조로 들끓고있는 기업소로동계급의 드높은 열의로 하여 대야금기지가 들어앉은 강선은 그대로 주홍색 쇠물빛으로 붉게 물들고있다.

글 본사기자 조선일
사진 본사기자 박창복

철강재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킨다.

생산흐름선을 타고 내벽타일이 쏟아진다.

대리석타일 소성로

# 전망이 좋은 천리마타일

지난해 제10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장에 전시된 여러가지 형태의 천리마타일들은 참관자들의 커다란 관심을 모았다.

《천리마타일의 질이 몰라보게 높아졌다. 타일들의 색갈과 모양이 좋은데도 있지만 더욱 기쁘게 한것은 그 원료가 모두 조국의 풍부한 흙과 돌이라는데 있다.》

…

오늘 강성국가건설의 동음이 힘있게 울려나오고있는 조국땅 그 어디서나 천리마타일에 대한 수요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천리마타일, 그 이름만 들어도 하루에 천리를 내닫는다는 전설속의 천리마가 눈앞에 나래를 펼친것만 같다.

천리마의 기상으로 새로운 조선속도를 창조하며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과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비롯한 조국땅 방방곡곡에 우후죽순마냥 일떠서는 기념비적건축물들과 수많은 건물들의 안팎을 멋들어지게 장식해주는 천리마타일이다.

천리마타일은 크기와 형태, 색갈과 문양이 다양하고 방수와 차열기능 등을 갖추고있으며 평면 및 직각허용수치, 수축률, 강도, 랭견딜성을 비롯하여 그 질적수준이 높아 ISO국제품질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접착제직장 실험실에서

종합조종실

인증을 받았다.

천리마타일공장은 남포시 천리마구역 대동강기슭에 자리잡고있다.

공장은 주체98(2009)년 7월에 세워졌다.

공장에는 외벽타일과 내벽타일, 바닥타일과 대리석타일은 물론 미정석과 대형인조대리석타일, 대형유리복합타일을 비롯한 생산직장들과 원료직장, 무연탄가스화공정이 있다.

지난해 8월 이 공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천리마의 고향인 강선땅에 자리잡고있는 공장의 이름을 천리마타일공장으로 명명하여주시였다.

전후시기 페허를 헤치고 미제가 보란듯이 사회주의조선을 일떠세우던 시기에 발휘되였던 천리마정신은 오늘날 강성국가건설장들에 필요한 건재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기 위한 이곳 생산자들의 투쟁속에 더욱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타일생산자들은 천리마정신이 나래치는 건재생산기지에서 일하는 긍지를 안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전례없는 생산적앙양을 일으켜나가고있다.

그들은 누구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공장의 새 력사를 쓰자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어갈 일념에 불타고있다.

공장에서는 우리 나라에 흔한 석탄을 가스화하여 타일소성을 하고있으며 모든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고 생산문화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있다.

외벽타일과 내벽타일, 바닥타일생산을 맡은 직장들에서는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새해에 들어와서도 1월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미정석, 대형유리복합타일, 대형인조대리석타일 등 각종 고급건재들을 생산하는 직장들의 기세도 이만저만 아니다.

기대별, 작업반별 증산경쟁의 열풍은 공장의 그 어디서나 세차게 일어나고 새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혁신이 대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지난 기간 200여건의 발명과 창의고안들이 생산에 도입되였으며 생산공정들에 대한 통합생산체계가 실현되고 수자식천연색분무인쇄공정이 꾸려져 벽돌 및 석재질감이 나는 고급타일들도 마음먹은대로 생산하고있다.

공장에서는 타일시공에 쓰이는 건재생산기지도 새로 꾸리고 질좋은 접착제와 메움재, 방수제들을 생산하고있을뿐아니라 수지마대와 같은 포장용기도 자체로 생산보장하고있다.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훌륭한 건축물들마다에는 질좋은 천리마타일들이 더 많이 리용되게 될것이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박창복

생산된 제품들의 일부



# 주택지구에 넘치는 기쁨

우리는 얼마전 평양시 은정구역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찾았다.

1 300여세대에 달하는 24개호동의 다층살림집들과 학교, 병원, 탁아소, 유치원, 각종 편의봉사시설들을 비롯한 공공건물들과 공원들…

이 방대한 규모의 주택지구를 조국의 군대와 인민은 7개월이라는 기간에 일떠세웠다.

거리의 여기저기에 독특하게 건설된 학교들과 약국, 병원, 위성원을 비롯한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 주택지구의 길이방향으로 일매지게 뻗어나간 도로들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건축미학적으로, 조형예술적으로 건설되여있었다.

그중에서도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것은 하늘에서 내린듯, 땅에서 솟은듯 대지를 박차고 일떠선 다층살림집들이였다.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의 외부는 여러가지 색타일로 보기 좋게 장식되

여있었다.

과학자들이 문화정서생활과 휴식을 마음껏 할 수 있게 공원들도 멋있게 꾸려져있었다. 특히 체육공원은 전문체육시설 못지 않았다. 체육공원에는 태양빛을 리용한 가로등들이 곳곳에 서있어 보기에도 좋았고 주변환경과도 잘 어울렸다.

롱구장과 배구장에서는 과학자들이 땀으로 온몸을 흠뻑 적시며 경기를 하는가 하면 로라스케트장에서는 어린이들이 웃고 떠들며 마음껏 주로를 누비고있었다.

그런가 하면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도입한 태양열온실에서는 오이, 도마도를 비롯한 갖가지 남새들이 푸른 잎을 한껏 펼치고있었다. 추운 겨울에도 싱싱한 남새들을 들고 가는 과학자들과 그 가족들의 얼굴마다에는 기쁨이 어려있었다.

모든것이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심리와 교수내용에 맞게 꾸려진 탁아소와 유치원, 학교들도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게, 새 세기 교육기지의 본보기답게 훌륭하였다. 유희실과 운동실, 잠방 등 탁아소와 유치원의 그 어느곳에 들려보아도 세상에 부럼없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밝고 명랑한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지식의 탑을 쌓아가는 학생들의 모습도 가슴뜨겁게 안겨왔다.

종합진료소와 약국 등 보건시설들은 물론 편의봉사시설들도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편리에 맞게 꾸려져있었다.

어느덧 주택지구에 어둠이 깃들었다. 저녁어스름이 깃들기 시작하자 하나, 둘 가로등들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불의 세계가 펼쳐지면서 낮에 보았던 희한한 거리를 또 하나의 다른 멋쟁이거리로 만들어놓았다.

3, 4, 5칸짜리 살림집들에는 질좋은 가구들과 겨울철온도보장을 위한 난방시설들이 잘 갖추어져있어 어느 집문을 열어보아도 새집에서 사는 기쁨이 차넘치고있었다.

우리는 은정구역 위성동 11호동 2현관 2층 2호에서 살고있는 국가과학원 국가균주보존연구소 실장 박민열의 집에도 들리였다.

5칸짜리 덩실한 집에는 침대, 식탁, 책장을 비롯하여 살림살이에 필요한 가구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었다.

부엌도 정갈하였다. 일매지게 타일을 붙인 벽이며 바닥은 산뜻하기 그지없었다.

박민열은 만족스러움에 잠겨 말하였다.

《새집을 받은지 여러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새집이 저에게 무상으로 차례지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딸애와 사위, 친척들과 동무들도 집을 보고는 부러움을 금치 못해하였습니다. 모든 방이 얼마나 아담하고 편리하게 잘 꾸려졌는지 보면 볼수록 놀랍기만 합니다.

정말이지 내 집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처럼 행복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앞으로 강성국가건설에 의의있는 연구성과들을 더 많이 내놓아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위성과학자주택지구에 넘치는 과학자들의 기쁨.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그려보며 주택지구를 떠났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박창복

위성유치원

위성원

위성종합편의

위성과학자병원

# 학생소년들의 설명절날 민속놀이

설명절의 이채로운 풍경은 학생소년들의 민속놀이이다.

매해 설명절이 오면 조국의 각지에서는 미래의 주인공들인 학생소년들의 여러가지 민속놀이와 체육 및 유희오락경기가 벌어진다.

평양에서는 **김일성**광장, 평양체육관광장을 비롯한 곳곳마다 솔대문 등으로 명절장식을 하고 설명절을 즐기는 수많은 학생소년들로 흥성거린다.

줄넘기, 제기차기와 팽이치기 등 여러가지 민속놀이들가운데서 이채를 띠는것은 학생소년들의 연띄우기놀이이다.

자기들의 희망과 꿈을 담은 연들을 서로마다 승벽내기로 높이 날리며 즐거움에 휩싸이기도 하고 하늘높이 날아올라 춤추는 꼬리긴 연들을 바라보며 누구의 연이 더 높이 날아오르는가를 겨루는 모습들을 여기저기서 볼수 있다.

맑고 푸른 하늘을 날아예는 《조국통일》, 《행복동이》, 《과학자》라는 글발들이 새겨진 연들의 모양과 색갈은 서로 달라도 거기에 실린 학생소년들의 희망과 꿈은 하나와 같이 밝고 아름답다.

여기에 뒤질세라 《하나, 둘, 셋…》하며 제기차기에 여념이 없는 소학교학생들, 누가 힘이 더 센가를 겨루는 남학생들의 무릎싸움, 재주를 겨루는 팽이치기 등은 어른들도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 세계에 빠져들게 한다.

평양시뿐아니라 각 도, 시, 군들에서 진행되는 학생소년들의 민속놀이도 설명절의 분위기를 한껏 돋구어준다.

글 본사기자 김솔미
사진 본사기자 박창복

바이올린수업

옥류금수업

성악학부 대중가요강좌

#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대학

조국에는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음악가들이 많다.

그들의 대부분은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졸업생들이다.

우리는 얼마전 훌륭한 음악예술인재들을 키워내고있는 이 대학을 찾았다.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문수지구에 일떠선 대학은 척 보기에도 음악예술인재들을 키우는 요람이라는것이 대뜸 알렸다.

우리와 만난 대학교무부학장 동주용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해방후 나라의 형편이 어려운 때였지만 전국 각지에 흩어져있던 음악가들을 한사람, 한사람 찾아내여 대학의 교육력량을 꾸려주시고 교사조건과 피아노를 비롯한 악기와 교구비품들을 마련해주신데 기초하시여 주체38(1949)년 3월 1일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의 전신인 국립음악학교를 창립해주시였다.》라고 서두를 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시기는 물론 그후에도 음악예술교육사업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음악예술론》을 비롯한 수많은 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음악예술과 예술교육발전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년대와 년대를 이어가며 대학의 교육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평양음악대학(당시)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일떠세울데 대하여 발기하시고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그이께서는 주체95(2006)년 5월 새로 건설된 대학을 몸소 찾으시여 조국의 미래인 후대들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 당은 억만금도 아끼지 않을뿐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 더 큰 보람과 기쁨을 느끼고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랑속에 학생들은 성악학부, 작곡학부, 민족기악학부, 양악기악학부, 악기제작학부를 비롯한 수십여개의 전공학과들에서 자기들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고있다.

0.6의 잔향이 보장되고있는 모든 전공학과 개별수업실들에서 대학생들은 유능한 교수들의 지도밑에 자기들의 재능을 세련시켜나가고있으며 국가적인 예술공연무대들과 예술단체들에 나가 자기들의 예술적기량을 더욱 공고히 다지고있다. 최근에만도 학생들은 세계적인 고전가극인 《예브게니 오네긴》을 비롯한 가극들의 주역으로 출연하였다.

대학에 있는 80명규모의 2관편성관현악단도 음악당에서 학생들의 지휘수업을 비롯한 창작, 연주실습을 보장해주고있다.

성악학부 강좌장 인민배우 리향숙은 명가수가 되자면 우리의 멋과 맛을 살려 인민들 누구나가 좋아하게 노래를 불러야 한다고 하면서 현시기 민족음악을 적극 장려하고 발전시켜나가는데로 교수가 진행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민족음악에 든든히 발을 붙일 때 인민들의 사랑을 받을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학생들은 로씨야, 이딸리아, 도이췰란드, 뽈스까 등 세계 여러 나라 음악대학의 이름있는 음악교수들의 초빙수업도 받고있다.

대학에서는 현재 로씨야 모스크바 챠이꼽쓰끼명칭 국립음악대학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음악교육기관들, 과학연구기관들과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조를 적극 발전시켜나가고있다.

대학졸업생들속에서 20여명의 **김일성**훈장수훈자와 **김일성**상계관인, 로력영웅 그리고 400여명의 인민예술가, 인민배우, 공훈예술가, 공훈배우들, 30여명의 국제콩클입상자들과 500여명의 국내콩클입상자들이 배출되였다.

대학은 주체78(1989)년 조국의 최고훈장인 **김일성**훈장을 받았다.

글 본사기자 김솔미
사진 본사기자 김 평

학생들의 공연이 자주 진행되는 음악당

정보보급실

가야금수업

모교를 찾은 제자들

# 기니스기록을 돌파한 교예배우

한호성

주체101(2012)년 11월 국립교예단 교예배우인 김명봉은 체력교예 《정복자들》에서 난도높은 공중에서 뒤로 4바퀴돌아잡기를 수행하여 기니스기록집에 올랐다.

당시 공중4회전은 공중에서 수행하는 회전의 최고회수였다.

하지만 국립교예단 배우 한호성(25살)이 기니스기록증서와 메달을 받은 김명봉배우의 공중4회전기록을 돌파하였다.

나이보다 퍽 어려보이는 그가 체력교예 《다각비행》에서 몸을 날렵하게 날려 뒤로 5회전을 대담하게 수행하는것을 본 관중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그에게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내였다.

호성은 그럴 때면 땀배인 자기의 훈련일지를 마음속으로 조용히 펼쳐보군 한다.

공중5회전은 호성이 교예단에 들어온 날부터 세운 목표였다.

경험이 많고 년한이 오랜 배우들과 연출가들은 그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주었다.

그러나 욕망과 성공은 거리가 멀었다. 매일 공중에서 밀재주배우와 손을 잡는 계기를 놓쳐 안전그물로 떨어졌다. 그러기를 몇번, 차츰 호성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느날 그는 훈련도중 머리에 심한 타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였다.

의사들은 호성이가 앞으로 공중교예를 할수 있겠는가고 많은 우려를 표시하였다.

사람들을 신비경의 세계에로 이끄는 공중교예를 호성은 무척 사랑하였다.

공중교예를 떠난 그의 생활이란 생각해볼수 없는것이였다.

그래서 그런지 평양교예학원시절 그는 늘 엉뚱하고 새로운 형상으로 선생님들과 동무들의 초점을 집중시키군 하였다. 그에 대한 선생님들과 동무들의 기대는 컸다.

병원침대에 누워서도 호성은 공중교예를 하는 꿈만 꾸었다.

(그런데 다시 공중교예를 하지 못한다면?)

호성이 정신적공허감에 휩싸여있을 때 공중교예배우들이 면회를 왔다.

인민배우 최명수는 《육체로 공중을 나는것이 아니라 정신력으로 공중을 난다. 동무는 얼마든지 5회전을 할수 있어. 나와 함께 날아보자.》고 신심을 주었다.

공연성과의 기쁨을 부모들과 함께 나눈다.

자기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에서 호성은 자기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읽을수 있었다.

그는 치료에 성실히 달라붙어 끝끝내 자리를 털고 일어났으며 자기가 사랑하는 공중무대에 다시 설수 있었다.

호성은 무섭게 분발했다. 그에게는 밤낮이 따로 없었다. 지상에서의 배힘, 상체힘키우기운동, 자감훈련…

공연을 마치고

차츰 그는 공중에서 뒤로 5회전후 손을 펴는 계기를 포착하였으며 교예연구사들과의 협력밑에 공중에서의 힘모멘트들에 대한 정확한 계산으로 훈련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촬영된 자료를 놓고 매일 훈련에서 자기의 부족점을 퇴치하였다.

드디여 그는 공중5회전후 밀재주하는 리철주와 손을 맞잡게 되였다. 뜨거운 눈물이 훈련장바닥을 적시였다.

그날 그의 훈련일지에는 2 000번이라는 회수와 함께 성공이라는 두 글자가 씌여지게 되였다.

그는 점차 세부동작들을 세련시켜나갔으며 주체102(2013)년 12월 도이췰란드에서 진행된 공연에서 자기의 실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많은 관중이 체력교예 《다각비행》에서 호성의 공중5회전을 보고 말로만 들었는데 실지 보니 최첨단이다, 조선사람들은 용감하고 강인하며 한다면 꼭 해낸다, 조선의 국립교예단공연은 우리의 넋을 빼앗아갔다, 조선의 공중교예가 제일이다라고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

호성의 아버지 한재룡은 국립교예단 기악배우이다. 호성은 아버지가 연주하는 음악을 들으며 하늘을 날고있다.

《6회전을 할수 있는가?》라는 기자의 물음에 그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나를 지켜보는 관중의 기대에 언제나 보답하고저 한다.》고 말하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엄향심

## 조선속담 (공포심)

–간이 콩알만 해지다

놀라거나 겁이 나거나 하여 몹시 두려워지거나 무서워진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놀란 토끼 벼랑바위 쳐다보듯

절망감에 사로잡힌 모양을 이르는 말.

–더위먹은 소 달만 보아도 헐떡인다

해별에 더위를 먹은 소가 해와 비슷한 둥근달을 보고도 지레 겁을 먹고 더위먹은것처럼 헐떡거린다는 뜻으로 어떤 일에 몹시 혼이 난 뒤에는 그와 비슷한것만 보아도 겁에 질려 하는것을 비겨이르는 말.

참고: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독수리 본 닭 구구하듯

위험이 닥쳐왔을 때 겁에 질려 어쩔줄 몰라하는 모양을 비겨이르는 말.

–봄꿩이 제바람에 놀란다

아무런 위험도 없는데 자기스스로 놀라는 꼴을 비웃어이르는 말.

참고: 노루 제 방귀에 놀란다

–불에 놀란 놈이 부지깽이만 보아도 놀란다

무엇에 몹시 놀란 사람이 그와 관련이 있거나 비슷한것만 보아도 겁부터 먹고 당황해한다는것을 비겨이르는 말.

–지레짐작 매꾸러기

① 걸핏 하면 꾸중을 받기 잘하는 사람이 무슨 일만 생기면 겁부터 먹고 떠는 모양을 비겨이르는 말.

② 쓸데없이 지레짐작하다가 공연한 화를 입게 됨을 비겨이르는 말.

* * *

# 따뜻한 대지에서

지난해 10월 위성과학자주택지구의 8호동 1현관 3층 1호의 창문가에는 밤이 깊도록 불빛이 꺼질줄 몰랐다.

국가과학원에서 연구사로 일하는 고경민이 새집을 받았던것이다.

4칸짜리 살림방에 리용할 식구수는 3명.

살림방의 여기저기를 돌아보며 책장과 침대 등 가구들을 열어보고 쓸어보는 경민의 눈굽은 젖어들었다.

(원래 쓰고 살던 집도 좋았는데 나라에서는 또 이렇게 우리 과학자들을 위해 주택지구를 건설하고 덩실한 새집을 나에게도 무상으로 안겨주다니…)

너무도 크고 아름찬 행복을 마주한 경민의 뇌리에는 잊지 못할 지난날이 돌이켜졌다.

경민이 태여난 곳은 일본이다. 그의 부모는 여섯자식을 먹여 살리느라 온종일 고된 로동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부모들이 아무리 힘들게 일하여도 가난은 면할수 없었다. 더우기 자식들의 공부같은것은 생각도 할수 없었다.

고경민

그러한 그들에게도 따사로운 해빛이 비쳐들었다. 주체49(1960)년 11월 그의 가족은 조국의 품에 안기였다.

나라에서는 그들에게 아늑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었고 형제모두를 대학과 학교들에 보내주었다. 나라에서 마련해준 살림집에서 형제들이 대학과 학교로 갈 때면 아버지, 어머니의 눈가는 늘 젖군 하였다.

마음껏 배우고싶던 경민의 소원도 이루어졌다. 중학교를 졸업한 그는 고등기계공업학교(당시)에서 공부하였고 후에는 리과대학에서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펼치였다.

그 나날 그는 조국이 얼마나 귀중하고 그 품이 얼마나 넓고 따뜻한가를 가슴속 깊이 새겨안게 되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과학원 연구사로 배치받던 날 그는 자기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일본에서 막벌이군의 아들로 태여나 가난과 멸시속에 살던 나였다. 그러했던 나를 안아주고 내세워준것은 조국이였다. 나라에서는 나를 대학공부까지 시켜주었고 오늘은 연구사로 키워주었다. …

내 삶을 품어주고 꽃피워준 조국, 이 고마운 조국을 위해 힘껏 일하리라.》

새 세대 연구사들과 경험을 나누는 고경민

그는 자기의 연구과제인 집적회로설계에 지혜와 정열을 바쳐갔다.

전자공업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절실한 의의를 가지는 집적회로를 발전시키자면 그 선행공정인 집적회로에 대한 설계를 잘하는것이 매우 중요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전자회로와 반도체물리학, 수학적모형화 등 다방면적인 지식을 습득해나갔다. 그리고 자기가 설계하는 선 하나, 점 하나에 의해 나라의 귀중한 자금과 자재, 로력이 절약되고 랑비된다는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설계에 온넋을 쏟아부었다.

어떤 때에는 한 품종의 집적회로설계를 놓고 그 안정성과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콤퓨터모의 실험으로 밤을 밝히기도 하였다.

그의 사색과 탐구가 비낀 설계에 의해 생산된 집적회로들은 전자제품들의 질과 국산화비중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가 연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은 후대들을 키우는 훌륭한 밑거름으로도 되였다.

현재 리과대학 겸직교원이기도 한 그는 지난 36년간 여러건의 교재와 참고서, 수십건의 론문들을 집필한것을 비롯하여 7명의 박사를 키워냈다.

뿐만아니라 국가적의의를 가지는 여러개의 발명권과 과학기술성과도입증도 받았다.

연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공로로 하여 그는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표창장을 받았으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촬영을 하는 영광도 지니였다.

경민은 말하였다.

《어제날 희망만을 작은 가슴에 품고 조국에 왔던 저를 교수 박사로 내세워주었습니다. 만약 제가 조국의 따뜻한 대지에 안기지 못했더라면 과연 저의 운명은 어떻게 되였겠습니까. 아마 일본이라는 차디찬 대지에서 피여나지도 못하고 시들어버렸을것입니다. 진정 조국이야말로 저와 저의 가정, 인민들모두의 영원한 삶의 보금자리이고 미래입니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박창복

가족과 함께…

상식

## 중세 우리 나라의 3대악성

우리 인민은 오랜 옛날부터 여러가지 민족악기도 만들고 자기의 념원과 생활감정을 노래에 담아 부르면서 민족의 전통적인 음악을 창조하고 발전시켜왔다.

유구한 민족음악발전사를 돌이켜보면 남달리 뛰여난 음악적재능을 가지고 음악발전에 큰 기여를 한 이름있는 음악가들이 많았다.

그중에서도 왕산악과 우륵, 박연은 우리 나라 중세민족음악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한것으로 하여 3대악성(3대음악거장)으로 이름을 남기였다.

왕산악은 고구려사람으로서 4세기 전반기에 민족악기 거문고를 창안제작하고 많은 악곡들을 창작하여 거문고음악의 시초를 열어놓은 재능있는 음악가이다.

우륵은 500년대초 민족악기 가야금을 창안제작하여 민족음악발전에 큰 공헌을 한 가야의 재능있는 음악가이다.

조선봉건왕조 초엽에 활동한 박연은 관악기연주에서 뛰여난 예술적기량을 보여준 연주가이며 민족음악을 리론실천적으로 체계화함으로써 민족음악발전에 크게 기여한 음악리론가이다.

* * *

# 아름다운 꿈을 꾸는 고장

얼마전 우리는 조국방문일정을 마치고 귀로에 오른 재로동포들과 함께 평양국제비행장으로 나간적이 있었다.

우리를 태운 차는 살같이 달렸다.

평양시 중심거리들을 지나 교외에 나서니 평양과 순안사이의 거리를 밝힌 리정표가 우리의 눈에 안겨들었다.

이때 곁에 앉아있던 한 동포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순안은 비행기를 타고 고국에 올 때면 제일 처음으로 우리를 반겨맞는 고장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고장에 나도 정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곁에 앉은 동포들도 저마다 머리를 끄덕이더니 독특한 조형미를 살려 건설된 항공역사며 흠잡을데 없이 닦아진 활주로와 유도로, 정류장과 가까운 앞날에 문명국의 척도를 직관적으로 보여줄수 있게 현대적으로 개발되고있는 평양국제비행장지구에 대한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나누었다.

…

그들을 바래우고 비행장을 나서는 우리에게는 불현듯 자기의 고향은 순안이라고 하던 로씨야에서 살고있는 류현웅동포의 얼굴이 떠올랐다.

얼마후 우리는 순안구역의 한 일군의 안내를 받으며 거리로 나섰다.

푸른 기와를 머리에 떠올리고 틀지게 앉아있는것 같은 조선식건물이 눈에 뜨이자 우리는 멀리에서도 순안면옥이라고 쓴 현판의 글자를 쉽게 알아볼수 있었다.

《마침 점심시간도 다되였는데 여기에서 랭면을 들고 가십시오. 우리 순안에 왔다가 여기 랭면맛을 못 보고 가면 후회하게 될것입니다.》

구역일군의 말이였다.

안으로 들어선 우리는 지배인 안정애녀성의 환한 웃음에 이끌려 손님들로 흥성거리는 식사실에 들어섰다.

돼지고기와 소고기, 배, 잣 등을 꾸미로 한 메밀랭면을 보니 방금 비행장에서 헤여진 동포들과 여기 국수맛을 함께 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나라가 해방된 후 어느해 봄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초라하였던 이곳에서 메밀랭면을 맛보시고 순안면옥이라고 현판을 크게 내붙여 누구에게나 멀리서도 잘 보일수 있게 하도록 하며 국수의 질을 계속 높일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순안면옥

순안구역의 일부



평양국제비행장에서

그후 이곳 사람들은 초라하였던 원래의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 기와집을 짓고 현판도 크게 달았으며 원료기지를 확보하고 축산도 본때있게 내밀면서 랭면의 질을 한단계씩 올려세웠다고 한다.

메밀랭면을 맛있게 든 우리는 이곳 인민들이 자체의 힘으로 건설한 학생소년회관으로 걸음을 옮기였다.

회관은 높지 않은 언덕우에 푸른 기와를 머리에 인 조선식 건축형식을 갖추고 서있었다.

화술, 성악, 콤퓨터, 수학, 물리, 태권도, 민족기악소조를 돌아보고 미술소조실에 들어선 우리는 한 학생의 화판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푸른 하늘로 《고려항공》비행기가 날고있는가 하면 거리에는 우후죽순처럼 솟아난 초고층 살림집들이 하늘을 찌를듯 서있었으며 나어린 학생들이 다정히 손잡고 학생소년회관으로 가고 있었다.

우리는 허리를 굽히고 그 그림을 그린 나어린 학생에게 조용히 물었다.

《몇살이냐?》

《여덟살입니다.》

《이건 상상화냐?》

《아닙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언제나 자기가 꿈꾸며 바라는것은 다 진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곁에 있던 관장 김광준은 《우리 학생들은 자기들의 고향인 순안이 평양의 관문답게 현대적으로 일떠서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림을 그렸습니다.》라고 말하는것이였다.

그의 말대로 다른 학생 또한 무연한 농장벌에 온실들이 서있고 그곁으로는 고속철길우로 기관차들이 신나게 달리고있는 그림을 그리고있었다.

꿈을 꾸면 현실로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마음껏 아름다운 꿈을 꾸는 조국의 인민들이니 순안사람들이라고 례외로 될수 없었다.

국제비행장을 끼고 수도중심구역과 린접하고있는 순안은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이 더 훌륭히 변모되여가고있었다.

이어 우리는 순안구역안의 여러 공장, 기업소들과 학교, 병원 등을 돌아보았다. 어디에서나 나날이 커만 가는 행복과 기쁨을 안고 더 아름다운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이곳 인민들의 모습을 보게 되였다.

우리는 동포들이 가까운 앞날에 변모된 평양국제비행장지구를 지나며 조국의 래일이 어떻게 가꿔지고있는가를 잘 알게 될것이라는것을 생각하며 취재길을 이어나갔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순안구역학생소년회관

순안구역영웅순안고급중학교의 축구소조원들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 중남지구협회 회장 김송미누이 앞

# 우리 마음 노래에 담아

언제나 보고싶은 누이, 그간 잘 있었습니까.

요즘 누이가 못 견디게 그리워져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얼마전에 《금수강산》편집부의 기자선생들을 만나는 기회를 가지였습니다. 그들을 통해 지난해 9월 누이가 조국을 방문하였을 때 남긴 인상깊은 장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배를 그러쥐고 웃기도 하고 깊은 상념에 잠기기도 하였습니다. 내용인즉 누이가 평양민속공원에 꾸려진 옛집에서 칠보단장을 하고 《결혼식》의 주역을 생동하게 하였다는 이야기였고 명승지로 손꼽히는 칠보산을 관광하며 해변가에서 유쾌한 체육유희경기에 참가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해외에 살고있는 동포청년들을 위해 방문기간 짬짬이 조국의 노래도 수집하고 글도 썼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누이의 모습을 정겹게 그려보았습니다. 누이가 어릴적에 가야금을 잘 타서 학생소년들의 설맞이공연에 참가했던 자랑스러운 모습, 내가 중학교시절에 태권도훈련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을 때 살뜰히도 돌보아주던 따뜻한 손길,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가족오락회를 할 때마다 누이가 울리던 피아노소리…

지난해 10월 나는 생일을 쇠면서도 백진혁, 김수진동무들을 비롯한 나의 친구들과 함께 그 피아노를 바라보며 누이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록 서툰 솜씨이지만 피아노를 타면서 어릴적에 누이와 함께 불렀던 노래들을 한곡한곡 더듬어 불러보았습니다. 지금도 나는 누이의 학생시절모습을 형상한 그림을 방안벽에 걸어놓고 자주 정답게 바라보군 합니다.

참, 누이가 보고싶은 생각에 내 이야기만 적었습니다.

매부랑 서진이랑 잘 있습니까.

매부는 해야 할 사업이 많은 속에서도 동포사업, 애국사업을 하는 누이의 일을 많이 도와준다는데 정말 매부에 대한 긍지가 큽니다. 둘합치면 더 큰 하나가 되고 그렇게 모두의 힘을 합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매부의 지론을 나는 가슴에 깊이 새기고있습니다.

누이, 비록 누이와 나는 멀리 떨어져있지만 조국과 민족을 위한 뜻을 합쳐간다면 우리는 늘 함께 있는것으로 될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를 낳아 길러준 어머니에 대한 정을 평생 가슴속에 안고 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언제나 자기 민족, 자기 조국에 대한 생각이 간직되여 있습니다. 누이는 해외에서, 나는 조국에서 애국의 길을 힘차게 걸어나갑시다. 바로 그렇게 사는 길이 부모의 뜻을 받드는 길이고 나날이 커만 가는 조국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누이, 부디 건강해서 좋은 일을 더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매부랑 서진이랑 함께 조국에 오십시오. 그때 매부가 좋아하는 털게며 해삼료리를 성의껏 만들어 대접하겠습니다.

그럼 누이와 다시 만날 그날을 그리며 나의 마음을 담은 노래를 적어보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첫 걸음마 떼여준  
정든 고향집뜨락 조국이여라  
누구나 소중한 그 품은 조국  
…

평양시 만경대구역 축전2동 2인민반 1현관 3층 1호  
동생 김광성 올림

인 상 기

# 우리는 한마음

나는 이번에 아흔살이 훨씬 넘은 어머니를 모시고 조국을 방문하였다.

어머니는 늘 조국해방전쟁(1950년 6월 25일-1953년 7월 27일)시기 싸우는 고지에 포탄을 이고지고 나르며 전투승리에 기여하던 때를 이야기하면서 조국의 변모된 모습을 보고싶어하였다.

그래서인지 이번 방문은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우리 민족의 력사를 한눈에 볼수 있는 평양민속공원이며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우후죽순처럼 일떠서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을 하나하나 꼽자고 해도 미처 다 꼽을수 없을 정도로 조국의 모습은 새로왔다.

건축물뿐이 아니였다.

거리를 오가는 평양시민들의 행복넘친 모습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인민들에게 행복을 안겨주시기 위해 모든것을 다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받들어 일터마다에서 기적을 창조해나가는 조국인민들의 모습들,

그들의 모습에서 나는 조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겠다는 자각을 가다듬게 되였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일찌기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건국사업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나는 비약하는 조국에 나의 작은 발걸음도 함께 맞춰나가겠다.

비록 조국과 멀리 떨어져있지만 마음은 언제한번 조국과 떨어져본적이 없다. 조국의 크고작은 일은 다 우리 일이다. 나나 우리 어머니나 심양시지부 성원들모두가 조국인민들과 한마음이다.

어머니는 이번에 조국을 방문하고 더없이 만족해하며 이제는 한이 없다고 하였다.

나는 조국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겠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심양시지부 리춘경

# 나라의 왕, 고국의 미래

내가 이번에 고국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제일 깊은 감명을 받은 곳은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이다.

흔히 아이들의 모습에 미래가 비낀다고 하지 않는가.

그것은 후대들이 어떻게 성장하는가에 따라 나라의 장래가 결정되기때문이다.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한가정의 래일도, 넓은 범위에서 나라의 미래도 내다볼수 있다.

평양의 만경대가까운 곳에 솟아있는 궁전은 20여년전에 세워졌다. 겉모양뿐아니라 내부도 이루 말할수 없이 훌륭하다.

우리는 여러 소조실들에서 하루수업을 마친 학생소년들이 마음껏 재능을 꽃피워가고있는 모습을 보았으며 극장에서 그들의 종합공연도 보았다.

그들은 모두가 무료로 배우고있었다. 오색조명이 밝게 비치는 황홀한 극장무대에서 궁전소조원들은 자기들의 재능을 마음껏 펼쳐보이였다. 그들의 공연을 보면서 나의 동생 뾰리나를 비롯한 우리 재로씨야동포들은 자꾸만 눈물을 흘리였다.

키도 작고 나이도 어린 학생소년들이 어쩌면 그렇게 악기도 잘 타고 노래도 잘 부르며 춤도 곱게 추는지 무대우로 달려올라가 귀여운 그들을 꽉 껴안아주고싶었다.

우리는 세계의 여러곳을 두루 돌아보았지만 고국의 아이들처럼 웃음많고 재능있는 아이들은 보지 못하였다.

고국에서는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고있으며 그들을 위하여서는 천만금도 아끼지 않고있다.

한자식을 키우는데 드는 품도 헤아리기조차 어려운데 고국에서는 나라의 모든 학생소년들을 한품에 다 안고 미래를 그토록 훌륭히 가꾸어가고있었다.

누구나 고국의 래일을 보려면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 한번 와보아야 할것이다.

로씨야 모스크바주 김 유리

# 칠보산에서의 3일밤 4일낮

-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대표단 -

칠보산은 예로부터 독특한 산악미, 계곡미, 바다의 경치로 하여 《함북금강》으로 알려졌다. 산이름도 진귀한 일곱가지의 보물에 비기여 칠보산이라고 부르는 이곳에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 일군들이 올랐다.

비행기를 타고 조국에 도착한 그들은 휴식도 미루고 곧장 칠보산의 관광로정에 올랐다.

울창한 수림으로 뒤덮인 산발들과 좁고 깊은 계곡들, 기묘한 봉우리들과 기암들, 장쾌한 폭포와 담소…

어디에 먼저 눈길을 두어야할지 몰라 그저 연방 탄사만 터치는 동포들, 그들은 아름다운 절경들을 관망할수 있는 내칠보의 개심대, 승선대 등에 올라 눈앞에 펼쳐지는 명소들에 저마끔 사진기렌즈의 초점을 맞추었다. 전장에서 돌아온 장수가 안해와 상봉하는것과 같은 부부바위, 의자까지 갖추어 무대우에 올려놓은듯 한 피아노바위, 효성이 지극한 소년이 아홉마리의 룡을 물리치고 금강골의 산삼을 캐냈다는 전설이 담겨진 구룡담과 금강폭포…

그런가 하면 외칠보에 펼쳐진 송이버섯모양의 웃음바위며 치마폭을 한손으로 감싸쥔 얌전한 처녀모습그대로인 처녀바위, 순박한 총각이 처녀에게 첫사랑을 고백하며 어색하게 서있는듯 한 총각바위 등의 생동한 모습앞에서 웃음집을 터치기도 하였다.

그들은 하루종일 등산을 하고서도 좀처럼 지칠줄 몰랐다. 칠보산에서의 밤이 류달리 긴것만 같아 밤이면 밤대로 흥겨운 노래와 춤으로 하늘의 별들과 마음을 나누었다.

그들의 즐거움은 조선동해의 푸른 물결이 기암절벽에 부딪쳐 물보라를 날리고 깎아지른 해안선의 절벽과 그 주변의 크고 작은 섬들로 절경을 이룬 해칠보에 이르러 절정을 이루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3개의 편을 구성하고 체육유희경기도 진행하고 조개잡이도 하였다.

그 모습이 참으로 볼만하였다. 밀가루속에 묻혀있는 사탕을 남먼저 입으로 찾아물고 달리느라 얼굴이 온통 가루투성이가 되였던 한성옥, 김송미동포들, 남보다 륜을 더 많이 돌리느라 온몸에 별의별 동작이 다 실리던 심홍광, 김봉철동포들, 늠실거리는 바다에 몸을 잠그고 솜씨있게 조개를 잡아 저녁식사의 맛을 돋군 리희웅동포 그리고 날래게 가재를 잡아 누군가의 신발안에 몰래 넣어 좌중에 웃음꽃을 활짝 피운 녀성동포들…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 부위원장 리국화동포는 이렇게 말하였다.

《칠보산의 경치가 아름다와 기쁨이 넘쳐나는것만은 아닙니다. 한민족이라면 그가 어디에 살건 한품에 안아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앞길을 밝혀주는 조국의 품이 하도 정겨워서 기쁨이 자꾸만 솟구치는것입니다.》

그들이 칠보산에서 맞고 보낸 3일밤 4일낮,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조국에 대한 정을 마음속에 더 깊이 새기게 한 하나의 계기로 되였다.

글 본사기자 홍정혁
사진 리의웅

# 고국을 알게 한 노래들에 대한 생각

내가 고국을 알게 된 때로부터 어느덧 20여년세월이 흘러갔다.

그 나날 나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참가를 비롯하여 한해에도 여러차례나 고국에 와서 음악으로 고국인민들과 친숙해졌고 이제는 나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돌이켜보면 나에게 고국을 알게 하고 나의 운명을 이끌어준것은 다름아닌 고국의 노래들이였다.

내가 미국땅에서 처음으로 고국을 알게 된것은 조선예술영화《월미도》를 본 때부터라고 말할수 있다.

1985년 어느날 록화기로 예술영화《월미도》를 보게 되였는데 주인공들의 모습은 나에게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고국인민들은 저렇게 싸우면서 피로써 나라를 지켰는데…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였던가.)

그때부터 나는 예술영화뿐아니라 기록영화를 비롯하여 고국의 영화라면 다 보았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아마 그 수는 200~300여편에 달하는것 같다.

그 나날에 나는 그 어떤 정황속에서도 자기를 지키고 자기의것을 빛내이기 위하여 애쓰는 고국인민들에 대하여 알게 되였고 그럴수록 나에게는 거기에 한번 가보고싶은 생각이 자꾸 치밀어올랐다.

그리하여 나는 평양을 향한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였다.

어느해인가 평양에 올 때였다. 비행기안에는 고국의 여러가지 출판물들이 있었는데 뜻밖에도 나는 어느 한 출판물에 실린 영생불멸의 혁명송가《**김정일**장군의 노래》를 보게 되였다.

힘이 있으면서도 서정적이고 그러면서도 가슴이 막 설레이게 하는 노래는 참으로 멋있었다.

노래의 구절구절들은 새겨볼수록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흠모의 마음으로 가슴이 끓어오르게 하였다.

백두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여 태양의 위업을 빛내이시고 주체의 락원을 가꾸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을 인민의 령도자로, 행복의 창조자로 높이 칭송한 노래의 1절과 2절도 훌륭하였지만 나에게는 노래 3절이 더 마음에 들었다. 《강철의 담력으로 사회주의 지키여》라고 시작되는 3절가사는 첫 대목부터 나의 마음을 꽉 틀어잡았다.

바로 그것이였다. 그이께서 지니신 강철의 담력과 배짱이 있어 조선이라는 자그마한 나라는 그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고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당당히 걸어나가고 있는것이였다.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정의를 수호해나가시던 장군님의 모습이 눈앞에 막 보이는듯싶었다. 사회주의를 지켜나가는 조선의 비결이 바로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데 있다는것을 그때 나는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였다.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될 때 조선에서만은 사회주의기발이 계속 휘날린것은 바로 강철의 령장을 모시였기때문이다.

고국에 체류하는 나날에 나는 《**김정일**장군의 노래》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고 관계부문일군들을 만나는 과정에 미국땅에서 꼭 이 노래를 울리려는 결심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였다.

마침내 1998년 12월, 나는 그날의 결심을 실현할수 있게 되였다.

그때부터 나는 미국땅에서 송가음악회도 진행하고 고국의 음악가들과 함께 미국순회공연도 하였으며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여 내가 지은 곡들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

이 과정에 나는 영생불멸의 혁명송가《**김정일**장군의 노래》뿐아니라 불후의 고전적명작《조국의 품》과《아리랑》,《그네뛰는 처녀》등 수많은 노래들을 알게 되였다. 힘과 용기가 차넘치면서도 민족적정서가 넘쳐나고 민족의 향기가 짙은 노래들은 내가 고국을 알게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고국과 나를 하나의 운명으로 결합시켜준 아름다운 그 노래들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싶다.

미국 우륵교향악단
단장 리준무



# 자랑많은 지부

지난해 9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심양시3중모범지부 조국방문단이 평양을 다녀갔다.

그들이 평양에 도착했을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의문을 표시하였다.

어떻게 되여 심양시지부가 3중모범지부칭호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난 오늘에야 조국에 왔을가 하는것이였다.

우리의 의문역시 같았다. 그것이 리해가 간다는듯 심양시3중모범지부 조국방문단 단장 황영두동포는《지금까지 나는 료녕지구협회 회장 겸 심양시지부장으로 사업하였다. 그러다가 주체103(2014)년 1월에 지부장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였다. 사람은 정에 산다고 나와 오래동안 같이 생활해온 지부동포들이 섭섭해하였다. 그들은 이때껏 마음을 합쳐, 힘을 합쳐 조국을 위해, 동포조직을 위해 좋은 일들을 하여왔는데 마지막으로라도 함께 조국방문의 길에 오르자고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3중모범지부칭호를 받던 그때의 그 감정을 가지고 조국에 왔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방문단성원들은 모두 예순을 넘긴 나이들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는 단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을 둘러보았다.

95살 고령의 나이이지만 조국방문의 길에 오른 승봉숙과 그의 딸 리준경, 지부사업에 열성인 리병철, 민병옥, 김태산, 김명덕, 김춘화, 박정옥, 김혁, 송시연, 함경자, 김옥화, 오성자, 김창숙동포들…

정말이지 볼수록 해외에서 조국을 위해, 동포조직을 위해 좋은 일을 애써 많이 한 흔적이 그들의 얼굴마다에 력력히 어려있었다.

심양시지부는 무어진 때로부터 매달 약속된 날이면 황영두단장의 집에 모여 학습을 진행하였다. 총련합회가 결성되여서는 가까운 총련합회 회의실에서 진행하였다. 학습내용의 기본은 조국에 대한것이였다.

그들은 조국의 출판물들과 방송을 통하여 조국의 숨결을 느꼈고 조국의 목소리를 들을수 있었다.

그리고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토의하여 힘을 합쳐 풀어나가고 애로되는 문제들은 서로 도와주며 우정을 두터이하였으며 조국을 위한 일에서는 뒤일을 생각지 않았다.

언제인가 조국에서 큰물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였다. 김태산, 김명덕을 비롯한 많은 동포들은《조국은 언제한번 우리와 떨어져본적이 없다. 조국의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고 조국의 기쁨은 우리 기쁨이다.》라고 하며 주저하지 않고 저저마다 자기들의 성의를 아끼지 않았다.

그런 실례는 허다하다. 심양시지부가 총련합회적으로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사업을 제일 잘한 단위로 평가되여 금상을 받게 된 이야기는 동포들의 제일 큰 자랑중의 하나로 되고있다.

심양시지부에서는 민족최대의 명절들과 조국의 국가적기념일을 맞을 때면 자기들의 성의가 담긴 지성품들도 마련하였다.

그가운데는 주체91(2002)년 2월 16일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탄생일을 맞으며 심양시지부동포들이 올린 천연옥돌공예도 있다.

그들은 그이의 건강을 축원하는 의미에서 천연옥돌을 다듬어 타오르는 태양과 60마리의 학, 사슴 등을 형상하였다.

황영두단장을 비롯한 지부성원들이 한달동안이나 중국의 여러곳을 찾아다니며 옥돌을 구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그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비밀로 되고있다.

주체102(2013)년 심양시지부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선진모범지부칭호를 받았다.

하기에 조국을 방문한 지부성원들은 나날이 비약하는 평양의 여러곳을 돌아보고 친척들을 만난 자리에서 조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결심들을 가다듬었다.

심양시지부는 동포들의 자랑, 총련합회의 자랑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 《우리 국장》

한성옥(오른쪽 첫번째)

지난해 4월 모란봉에서였다.

《모란봉은 마치 모란꽃과도 같이 생김새가 기묘하고 특이하여 예로부터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모란봉에는 최승대와 을밀대를 비롯하여 조국의 오랜 력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고적도 많습니다. 특히 을밀대의 봄경치나 부벽루의 달맞이는 예로부터 평양8경의 하나로 일러왔습니다. …》

함께 온 동포들에게 모란봉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해주는 한 동포녀성이 있었다.

보기 좋은 키에 항상 웃음을 띠고있는 환한 얼굴…

그에 대한 호기심이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였다. 그러는 우리를 만류하며 한길수(재중조선인총련합회 선전국장)동포가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저 동무가 바로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에서 선전국장을 하는 한성옥입니다. 성옥이에 대한 이야기라면 차라리 우리한테서 듣는 편이 더 나을겁니다. 동포들은 그를 가리켜 〈우리 국장〉, 〈이악쟁이국장〉이라고 부릅니다.》

한성옥이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에서 선전국장사업을 시작한지는 그리 오래지 않다.

하지만 그는 많은 동포청년들을 조직에 묶어세웠으며 애국의 길에 내세웠다.

비록 남편과 두 아이를 가진 가정주부이지만 사는 보람은 역시 조직에 몸을 잠글 때 있는 가싶다.

중국 각지에서 살고있는 청년들을 찾아내여 조직에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이며 해마다 5월과 9월이면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업적이 깃들어있는 전적지와 사적지들을 참관하는 사업, 조국의 새 소식을 제때에 알려주는 일 그리고 동포청년들이 로세대동포들의 생활을 성심성의로 돌봐주는 사업, 새로 나온 조국의 노래를 보급하는 사업…

이러한 사업은 다 한성옥국장의 고심과 노력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때로는 한명의 동포청년을 조직에 받아들이기 위해 청도, 상해, 남경 등으로 걸음도 많이 하였고 또 어떤 때에는 가정을 위해 저축해두었던 자금마저 동포청년들을 위한 사업에 서슴없이 내놓을 때도 있었다.

조직을 위하고 동포청년들을 위한 일에서 그는 언제나 적극적이였고 사심이 없었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동포들의 일이라면 극성이던 한 동포청년이 가정을 이룬 다음부터 조직을 멀리하는것이였다. 그는 동포청년과 담화도 해보고 가정도 찾으면서 그 리유를 알아보았다. 원인은 살림을 꾸려나가기 힘들다는것이였다.

그 일을 두고 동포청년들이 어쩔수 없는것으로 단정할 때에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를 도와주는것은 한명의 동포청년이 조직에서 나가고 들어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로세대들이 넘겨준 애국의 계주봉을 우리 새 세대동포들이 굳건히 이어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

그의 말은 동포청년들의 심금을 울리였다. 조직의 모든 성원들이 그 동포청년을 도와나섰다.

그 계기를 통하여 청년들은 조직의 힘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으며 애국사업에 더 헌신적으로 나서게 되였다.

그 나날 그에게도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었다. 그때마다 그에게 힘과 용기를 준것은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조국의 힘찬 모습이였고 멀리 있는 자식들을 먼저 위해주는 조국의 사랑과 믿음이였다.

최근에만도 그는 동포청년들을 발동하여 건설의 번영기를 열어나가는 조국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한다.

언제나 자신보다 조직을 먼저 생각하고 동포청년들을 위하는 그를 두고 동포들은 《우리 국장》이라고 사랑과 정을 담아 부르고있다.

본사기자

# 진국의 정치제도에 대하여

B. C. 12세기경 조선반도 중남부지역에 고대국가 진국(삼한)이 세워졌다. 진국은 노예소유자계급의 리익을 옹호한 나라로서 그에 맞게 중앙과 지방에 발전된 관료통치기구와 법, 군대 등 정연한 통치체계를 갖추고있었다.

진국의 노예소유자들이 만들어낸 정권은 저들의 계급적리익을 옹호하고 노예를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을 억압착취한 반인민적이며 관료적인 정권이였다.

이 정권의 최고통치자는 진왕(진국왕)이였다. 진왕은 삼한(마한, 진한, 변한)가운데서 가장 크고 강한 세력을 이루고있던 마한출신귀족들만이 될수 있었으며 이런 의미에서 진왕을 마한왕이라고도 불렀다. 다시 말하여 진국에는 삼한을 통치하는 진국왕이 있고 그밑에 마한을 통치하는 왕이 따로 있은것이 아니라 마한왕이 곧 진왕으로 되였던것이다. 진왕(마한왕)은 마한지역은 물론 더 나아가서 진한, 변한지역까지도 모두 다스린 진국의 최고통치자였다.

진왕밑에는 한왕들이 있었다. 진왕은 곧 마한왕이였으므로 마한에는 따로 한왕이 없었으나 진한과 변한에는 각각 한왕들(진한왕, 변한왕)이 있었다. 한왕들도 역시 마한귀족출신들로 임명되였는데 진왕과 한왕을 비롯한 노예소유자귀족들은 마한을 중심지역으로 하고 진한, 변한을 속국으로 하는 통치체계를 가지고있었다. 진한왕, 변한왕은 진왕의 통제밑에 각기 자기 지역의 소국들에 대한 지배를 실시하였으며 일정한 독자성도 가지고있었다.

진왕과 한왕밑에는 소국들이 있었다. 진국의 삼한지역에는 모두 78개의 소국이 존재하였는데 그가운데서 중심지역인 마한에는 54개국, 진한과 변한에는 각각 12개국이 있었다. 마한의 54개의 소국들은 크게 두개의 등급으로 갈라져있었는데 큰 소국은 인구가 1만여호, 작은 소국은 수천호를 망라하고있었다. 그 통치자역시 큰 소국의 통치자를 신지, 작은 소국의 통치자를 읍차라고 불렀다. 반면에 진한과 변한의 소국들은 그 크기에 따라 5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져있었으며 그 통치자들도 순위에 따라 신지, 험측, 번예, 살해, 읍차 등 여러가지로 불리웠다.

진국안의 각 소국들에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의식을 맡아보는 천군이 있었다. 진국에서는 해마다 봄철씨뿌리기가 끝난 5월과 가을걷이를 마친 10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큰 행사를 하군하였는데 그 주관자가 다름아닌 천군이였다. 천군은 당시 제천행사의 주관자로서 소국의 우두머리들과 함께 대표적인 통치자였다.

진국에는 또한 소국들마다 국읍, 읍락, 별읍이라는 지방행정단위들과 그를 지배하는 지방행정관리들을 두고있었다.

국읍은 소국의 중심지로서 소국안의 여러 읍락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읍락(마을)이였다. 국읍에는 소국의 통치자들이 있었으며 그들은 소국안의 여러 읍락들을 통치하였다.

진국의 매 소국들에는 국읍, 읍락외에 특별히 설정된 별읍이 있었다.

별읍은 《소도》라고도 불리웠는데 하늘제사나 신을 숭배하기 위해 특별히 설정된 고장인것만큼 일반 읍락과는 구별되였다.

진국에는 노예제적질서를 유지공고화하기 위한 가혹한 법이 있었으며 노예주계급의 리익을 보호하기 위한 폭력수단인 군대가 있었다.

진국의 군대는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편성되였다. 중앙군은 수도를 포함한 마한의 중심지역들에 있었고 지방군은 진한과 변한 그리고 마한의 변방소국들에 있었다. 진국의 군대는 보병과 기병으로 구성되여있었으며 그가운데서 주력을 이룬것은 보병이였다.

진국의 통치배들은 이렇듯 발전된 관료통치기구와 법, 군대 등 통치체제전반을 부단히 정비보강하면서 그에 의거하여 노예제도를 유지공고화하고 노예를 비롯한 피압박근로대중에 대한 노예제적억압과 착취를 강화하였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최인철

국제친선전람관

# 조선의 관광지들을 찾아서 (5)

## - 묘향산지구 -

이번호에서는 조선의 북서부에 자리잡고있는 묘향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구에 대하여 소개하려고 합니다.

조선의 6대명산의 하나인 묘향산은 둘레가 300여리이고 면적은 375㎢입니다.

묘향산이라는 이름은 이 산의 경치가 기묘하고 아름다우며 산들에 싱그러운 향기를 풍기는 나무들이 많은데서 유래되였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나라의 서쪽에서 가장 높고 아름다운 산이라고 하여 서산이라고도 하였습니다.

묘향산은 1 909m에 달하는 비로봉을 비롯하여 기묘한 봉우리들과 산발들, 천만가지 모양의 기암괴석들, 맑은 물이 흐르는 수많은 크고작은 폭포들로 하여 아름다움의 신비경을 이루고있습니다.

묘향산에는 다양한 식물들과 30여종의 산짐승들, 130여종에 달하는 새들이 살고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이곳을 찾으시여 묘향산을 인민들의 문화휴식터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꾸릴 전망을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몸소 등산로정도 정해주시며 묘향산을 세계적인 명산으로 꾸리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묘향산은 근 천년의 력사를 자랑하는 보현사를 비롯하여 조선민족의 뛰여난 건축술과 문화를 자랑하는 수많은 귀중한 력사유산들이 그대로 보존되여있는 유명한 력사유적명승지입니다.

비교적 센 바람이 없고 따뜻한 묘향산의 년평균기온은 8. 3℃이며 년평균강수량은 1 300㎜이상입니다. 평양에서 묘향산까지의 거리는 150㎞이며 평양-향산관광도로가 시원하게 뻗어있어 묘향산관광은 뻐스나 승용차를 리용하는것이 편리합니다.

묘향산지구에서 선참으로 꼽는 관광대상은 국제친선전람관입니다. 국제친선전람관은 향산호텔에서 향산천을 따라 1. 5㎞ 올라가면 있습니다.

전람관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 세계 5대륙의 수많은 나라의 당 및 국가지도자들과 저명한 인사들이 올린 지성어린 선물들이 전시되여있습니다.

주체67(1978)년 8월에 개관된 전람관은 나무를 하나도 쓰지 않고 지었지만 나무로 지은것처럼 보이며 창문은 하나도 없지만 있는것처럼 보이는 특색있는 조선식건축물로서 빛, 온습도를 자동적으로 조절할수 있게 되여있습니다.

전람관추녀의 모서리마다에는 민족적인 전통을 살린 나비모양의 풍경들이 달려있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우아한 소리를 냅니다.

전람관은 6층으로 되여있으며 본관과 1관, 2관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만일 선물 한점을 보는데 1분이 걸린다고 보면 이 전람관에 전시된 선물들을 다 보자면 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묘향산의 등산길도 관광명소에서 빼놓을수 없습니다.

묘향산에는 법왕봉과 오선봉 남쪽비탈면 골짜기에 있는 상원동등산길과 향로봉과 천탑봉에서 뻗어내린 산발들사이를 따라 이어지는 만폭동등산길, 비로봉등산길이 있습니다.

향산제일암으로 알려진 상원암(사찰)이 있어 상원동이라 하는 상원동등산길은 묘향산의 명승골안들중에서 경치가 제일 아름다운 곳입니다. 상원동에는 이 로정의 제일봉인 법왕봉오름길과 상원암에서 불영대쪽으로 가는 등산길이 있습니다. 상원동등산길에서는 상원문, 금강문을 거쳐 금강폭포, 룡연폭포, 산주폭포 등의 폭포들과 전망이 좋은 인호대 그리고 상원암, 능인암, 불영대와 같은 많은 력사유적유물들을 볼수 있습니다.

크고작은 폭포들이 1만개나 있다고 하여 만폭동으로 불리우는 등산길은 기세차고 장쾌한감을 주는 등산로정입니다. 만폭동등산길은 만폭동입구의 서곡폭포에서 무릉폭포, 은선폭포, 만폭대를 지나 유선폭포, 장수바위, 비선폭포를 부감하고 9층폭포까지 올라 9층폭포에서 내려오게 되여있습니다. 만폭동에서는 서로 다른 모양의 이름난 폭포들, 담소들뿐아니라 기암들과 조선민족의 시조인 단군전설이 깃든 단군대도 보게 됩니다.

상원동의 산주폭포

향산호텔에서 5. 5㎞정도 차를 타고 가면 비로봉등산길어구에 이르게 됩니다. 비로봉은 묘향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1 909m)입니다. 비로란 불교경전에서 제일 높다는 뜻으로서 조선사람들은 예로부터 제일 높은 봉우리를 비로봉이라 이름지었습니다. 산마루에는 바위들이 드러나있고 비탈면의 물매는 매우 급합니다. 낮은 지대식물로부터 높은 지대식물에 이르는 식물이 거의다 분포되여있으며 다른 봉우리에 비해 누운잣나무, 누운향나무, 만병초, 백리향 등 희귀한 고산식물

등산길

부도

보현사의 대웅전과 8각13층탑

들이 많습니다.

묘향산은 력사유적으로 또한 유명합니다.

묘향산에 있는 보현사는 1042년에 건설된 조선의 민족건축술을 대표하는 이름있는 사찰의 하나입니다. 보현사는 부처의 도덕을 말아보는 보현보살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근 1 000년의 오랜 력사를 걸치면서 여러번 고쳐세웠는데 지금 남아있는 건물들은 1441년부터 1775년사이에 고쳐지은것입니다.

보현사는 력사적으로 불교전파의 주요거점으로 되여있었습니다. 원래 24채의 건물들과 탑들로 이루어져있었으나 지금은 5만㎡의 부지안에 조계문, 해탈문, 천왕문, 만세루, 대웅전, 관음전, 령산전, 수충사, 8각13층탑, 4각9층탑, 《팔만대장경》보존고 등이 있습니다.

보현사는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을뿐아니라 주변의 자연경치가 아름다운것으로 하여 더욱 유명합니다.

8각13층탑은 보현사의 만세루와 대웅전사이에 있는 유명한 탑입니다. 고려 말기에 세운것인데 높이는 10. 03m이며 밑단한변의 길이는 1. 2m입니다. 탑의 밑단에는 아래로 드리운 련꽃과 우로 피여오르는 련꽃이 새겨져있습니다. 화강석으로 정교하게 다듬어 쌓은 이 탑은 우리 나라의 오랜 력사유적 석탑가운데서 예술적기교가 뛰여난 석탑입니다. 8각으로 된 매층 지붕돌의 추녀끝마다에 풍경이 매달려있는데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아름다운 소리를 내여 기분을 상쾌하게 해줍니다. 방울은 총 104개입니다.

이밖에도 묘향산지구에는 향산천기슭에 자리잡고있는 피라미드식의 매력적인 건축형식을 갖춘 향산호텔, 묘향산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청천려관, 묘향산관광을 위한 숙박시설들과 봉사시설들이 잘 꾸려져있는 향산군의 소재지인 향산읍과 묘향산의 외향산지대에 있는 룡문대굴(4억 8천만년전에 형성된 지하명승입니다. 길이가 6km이며 2개의 원굴과 30여개의 가지굴이 있습니다. 석화동, 철벽동, 백화동, 옥화동, 보석동 등 수십여개소의 명소들이 있으며 대굴의 제일 높은 곳은 40m이며 제일 넓은 곳은 60㎡입니다.)과 송암동굴(균렬성고회암층이 오랜 기간 용해, 용식작용을 받아 형성된 석회암동굴입니다. 기기절묘한 천태만상의 절경을 자랑하는 동굴에는 폭포동, 기암동, 설경동, 수림동, 보물동, 장수동, 룡궁동, 풍년동을 비롯한 십여개의 동에 수십여개의 웅장하고 황홀하며 신비스러운 명소들이 있습니다.) 등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묘향산지구에 대한 관광이 끝나면 또 어떤 곳에 대한 관광을 하게 되겠는지.

다음호를 기다려주십시오.

글 본사기자 한신애
사진 본사기자 최원철

# 독특한 수정과맛에 끌려

새해를 축하합니다.

동포여러분, 올해에도 건강하여 가정에 언제나 기쁨과 행복만이 가득 차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나의 가정들에서 제일 흥그러운 일로 되고있을 설명절맞이가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것 같습니다.

집안팎을 깨끗이 거두고 식구들이 설명절에 입을 옷이며 식탁에 올려놓을 음식들을 장만하면서 얼굴에 웃음을 담고있는 그 모습들을 말입니다.

설명절에는 뭐니뭐니해도 설음식들을 잘 준비하였다가 설인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과 가족, 친척들에게 푸짐히 대접하는것이라고 말하는 녀성들의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그럼 이번호에서는 일명 세찬이라고 하는 설음식가운데서 수정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는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다싶이 설음식상에는 떡국, 찰떡, 설기떡, 송편을 비롯한 떡류와 지짐류, 당과류 등은 물론 식혜나 수정과같은 음료도 오르게 됩니다.

설날아침 식탁에 앉아 처음으로 들게 되는것이 떡국이라면 제일 마지막으로 드는것은 수정과입니다.

수정과에 대한 말이 난김에 제가 얼마전에 낯을 익힌 한 가정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2호동 7층 1호에서 살고있는 김유경녀성입니다. 그에게는 수정과를 기막히게 만드는 솜씨가 있답니다.

그가 자기의 집에 찾아오는 이웃이나 친척들은 말할것도 없고 해외동포들에게도 직접 만들어 대접하는 수정과의 상쾌한 맛에 한번 끌리면 누구든 곱배기를 요청하군 한다고 합니다.

해외동포들과 동행하여 그의 집을 찾았던 저도 수정과에 대한 인상이 참으로 깊었었습니다.

예? 그가 개성태생인가구요?

아니, 그는 평양에서 태여나 지금까지 살아오고있습니다.

사실 수정과는 개성일대의 특산음식이여서 독자여러분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수 있다고 봅니다.

유경녀성은 개성과 가까운 지방출신인 어머니에게서 수정과 만드는 방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김유경녀성과 수정과를 직접 만들며 나누었던 이야기를 적어보겠습니다.

《수정과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음료입니다. 수정과라는 이름이 언제 어느때 붙여졌는지 잘 알수 없으나 저의 생각에는 수정처럼 맑은 물속에 잠겨진 파일이라는 뜻으로 안겨옵니다.

수정과는 생강과 계피를 우린 단물에 곶감을 넣어 만든 고유한 민족전통음료인데 곶감정과라고도 부릅니다.

향기롭고 달면서도 시원하며 독특한 맛을 가진 수정과는 곶감속에 들어있는 여러가지 비타민과 칼시움, 린 등으로 하여 영양가가 높습니다.

수정과의 맛을 결정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곶감을 잘 선정하는것입니다. 말하자면 곶감의 질이 좋아야 합니다.

곶감은 가을에 딴딴한 감을 따서 껍질을 벗겨 꼬챙이에 꿰여 말린 감인데 그 대부분이 당분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질좋은 곶감은 누런 밤색이 나며 겉면에 흰가루가 다분히 덮여있습니다.

수정과 두명분에 해당한 음식감으로는 곶감 40g, 계피 0. 4g, 꿀 10g, 잣 4g, 사탕가루 50g, 물 0. 5L, 생강 4g이 듭니다.

만드는 방법은 우선 곶감을

# 《인권》을 자기의 제국주의침략목적에 도전하는 나라들에 대한 제1차 공격무기로 리용하는 미국

- 로씨야과학원 동방학연구소 과장 알렉싼드르 워론쪼브의 글 -

로씨야과학원 동방학연구소 과장 알렉싼드르 워론쪼브가 《〈인권〉을 자기의 제국주의침략목적에 도전하는 나라들에 대한 제1차 공격무기로 리용하는 미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다.

필자는 다음과 같이 썼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조선의 《인권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공격을 이 나라를 압박하기 위한 전통적인 전술내용에 포함시켰다.

조선의 《인권》에 대한 공격은 이전에도 감행되였지만 최근에 그것이 더 강화되였다.

《인권공세》는 구체적으로 작성된 장기적인 전략으로 되고있다.

이 전략의 첫번째 내용으로 되여있는것이 미국회에서 통과된 《북인권법》이다.

이 《법》은 미국의 정책작성자들이 감행하는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을 보여주는 실례이기도 하다.

이때 미국에 본부를 두고있는 《북조선인권위원회》라는 한 단체가 《북인권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취급될것을 촉구하였다.

《보고서》에서는 유엔총회에서 해당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국제사회에 조선이 《현대세계에서 더이상 있을 곳이 없는 악의 제국》이며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암흑의 땅》이라는것을 인식시키고 그에 해당한 《징벌조치》를 취할것을 권고하였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국제적인 징벌작전》의 서막처럼 느껴진다.

평양은 워싱톤의 행동에 응답하는 강한 어조의 담화와 성명들을 발표하였다.

2014년 10월 25일 조선국방위원회에서 발표한 《우리 공화국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극악무도한 〈인권〉소동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것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있다.

1.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인권》공세가 극단의 지경에 이른 이상 그 관계세력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호의 용서도 없이 대를 이어 가장 처절하게 결산한다는것을 미국에 정식으로 통고한다.

2. 미국의 반공화국《인권》소동이 우리의 존엄높은 체제와 제도붕괴를 노린 악랄한 음모로 번져지고있는 이상 그를 짓부시기 위한 우리 식의 새로운 강경대응선전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포고한다.

3.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인권문제》를 구실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추구하는 불순한 침략공조를 정의와 진리의 반미공조로 철저히 짓부셔버릴것을 세계에 호소한다.

사태가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평양은 남측과의 대화개시를 위한 새로운 방안들을 탐구하였다.

조선사람들은 새로운 방법으로 그렇게 할수 있는 자신들의 능력을 다시금 보여주었다.

그러한 조치의 하나가 남조선 인천시에서 진행된 아시아경기대회에 대규모선수단을 파견한것이다.

그것은 모든 방관자들을 놀라게 하였다.

이 경기대회에서 조선선수들은 훌륭한 경기모습을 보여주었다.

조선의 선수들은 36개의 메달을 쟁취하였으며 그중 금메달은 11개였다. 조선선수들은 여러 종목에서 세계신기록을 세웠다. 녀자축구팀은 이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가장 큰 폭탄은 아직 떨어진것이 아니였다.

10월 4일 정치가들과 전문가들은 북조선의 고위급간부들이 이 경기대회 폐막식에 참가하기 위해 남조선의 인천시에 도착하자 어리둥절해졌다.

그것은 단순한 례식적인 방문이 아니라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김정은**령도자의 직접적인 위임을 받은 특별사절단이였다.

이렇게 놓고볼 때 실제적인 북남대화를 재개하려는 평양의 의지를 보여주는 보다 명백한 징후로 무엇이 더 될수 있겠는가.

이러한 조치의 가치는 조선의 고위급인물들의 인천방문에 앞서 서울이 고위급회담재개를 제안하였기때문에 보다 더 명백해진다.

그것을 제안한 날은 미국과 남조선이 군사연습을 앞둔 때였다.

서울은 북이 그 군사연습이 끝나야만 답을 줄것이라는것을 알고있었다.

북의 고위급인물들은 희망을 안고 서울과 많은 문제들을 토의하였으며 그중에는 관측자들의 말이기는 하지만 북남수뇌자회담문제도 있었다.

조선반도문제의 우여곡절을 따라가면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돌파구적인것이 못되여도 명백히 긍정적인 전환으로 될수 있는 일이 북남관계에서 일어나지 않겠는가를 기다렸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조선의 북과 남을 가깝게 만들려는 이 제안은 케케묵은 정치적놀음에만 전념하는자들의 저항에 부닥쳤다.

조선국방위원회는 남측이 북남고위급회담이라는 중요한 회담을 앞둔 때에 평양을 비방하는 선전물이 가득찬 풍선을 북쪽으로 계속 날려보내고있는 상황에서 2014년 10월말로 계획되였던 고위급회담을 진행할수 없게 되였다는것을 서울에 통지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풍선문제는 새롭게 제기된것이 아니였다.

서울에서 리명박《정권》이 집권한 때로부터 몇년동안 남측은 북을 향하여 선전물이 들어있는 풍선을 정상적으로 날려보냈다.

몇몇 특정한 비정부기구들이 이 작전에 개입되여있으며 그 수는 많지 않아도 대단히 적극적이고 소란스럽다.

평양이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항의도 하고 경고도 하였지만 남조선은 자국이 《민주주의적인 국가》이며 《비정부기구들의 행동을 억누를수 없다.》는 구실로 그것을 무시하여왔다.

그러나 남조선의 《민주주의》는 북조선과의 경계선상에서 살고있는 자국주민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한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남조선의 파주시를 들수 있다.

이곳 주민들은 반북단체들이 자기들의 도시를 풍선발사지로 리용하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있다.

이 모든 사실로부터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수 있겠는가.

워싱톤이 대조선적대시정책에서 될수록 빨리 그리고 확고히 돌아서지 않는 한 북과 남의 관계개선으로 향한 문은 계속 닫겨져있을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갈라진 조선사람들의 운명에 대한 최종결정권은 조선사람들에게 있다.

* * *

---

깨끗이 씻어 씨를 뺍니다.

남비에 물을 붓고 얇게 편을 낸 생강과 계피를 넣고 20분정도 끓입니다.

생강과 계피의 향기가 잘 우러나면 계피와 생강은 건어내고 사탕가루와 꿀을 넣고 끓입니다. 끓인 단물의 온도가 50~60℃일 때 곶감을 넣어야 곶감의 맛이 잘 우러납니다.

그 상태에서 3~4시간 놓아둡니다. 다음 곶감을 건져놓고 수정과물을 걸러서 차게 식힙니다.

수정과를 손님들에게 대접할 때 맑은 유리그릇에 건져놓았던 곶감을 담고 수정과물을 부은 다음 잣알을 띄웁니다.

수정과는 패혈증을 막으며 피로를 회복시켜주는데 아주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든 수정과도 그 맛에서 크게 다를바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에 찾아가보는 기회가 있으면 김유경녀성의 집에 들려서 수정과를 한번 맛보게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연 옥

유모아

## 더우면 늘어나고 추우면 줄어든다

물리선생: 어떤 물건이든지 더우면 늘어나고 추우면 줄어든다. 어느 학생이 실례를 들어 이 원리를 설명할수 있느냐?

학생: 선생님, 제가 말하겠습니다.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덥기때문에 겨울해는 짧고 여름해는 길다고 봅니다.

# 농학자 박세당

박세당(1629년-1703년)은 17세기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진보적철학자이며 농학자이다.

어려서부터 글읽기에 열중한 그는 사물의 리치를 파악하려는 의욕이 강하여 책을 읽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하나 따지면서 파고들었다.

1661년 과거에 급제한 그는 리조판서, 중추부판사 등의 높은 벼슬을 하였으며 말년에는 주로 학문연구를 하였다.

그의 철학사상은 진보적량반계급의 리해관계를 대변하였다. 그는 세계의 시원을 형체가 없는 물질적인 《기》로 보았다. 그에 의하면 《기》로부터 음기와 양기가 분리되고 그의 호상작용에 의하여 하늘과 땅을 비롯한 만물이 발생하며 그다음 생명운동을 하는 동물과 사람이 생겨났다. 그는 인간의 형체는 《기》로 이루어져있으며 형체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정신적지각현상이 있게 되였다고 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리》는 사물현상들속에 있는 법칙성을 의미하였다.

그의 륜리도덕적견해는 봉건적이였으나 거기에는 봉건도덕의 부패타락상에 대한 비판과 농민대중의 도덕적량심에 대한 찬양이 포함되여있다. 그는 인민들에 대한 대토지소유자들의 지나친 착취와 압박을 비판하였다. 자연관에서는 기본적으로 유물론적립장에 서있었으며 륜리도덕적, 사회정치적견해에서는 일련의 긍정적요소도 가지고있었다. 그러나 그의 견해는 총체적으로 봉건적이며 관념론적이였다.

그는 농학자로서 17세기 우리 나라의 영농방법과 농업과학을 리론적으로 체계화하였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여러차례에 걸치는 외래침략자들과의 싸움에서 령락된 인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것이였다. 그는 《농사는 바로 민생의 근본이며 천하의 절실한 도로서 성인도 일찌기 그 술을 페지하지 않고 모든것을 다하여 자신이 배워 사람들을 가르쳤다.》라고 하면서 영농방법과 농업과학에 대한 책을 써서 농업생산을 높이는데 이바지하였다.

그의 저서 《색경》은 토양학, 농사학, 과수학, 림학, 약초재배학, 양잠학, 축산학, 농가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농촌수공업, 농업기상학 일반에 이르는 지식과 경험들을 집대성하고있어 이 시기 우리 나라의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저서로는 이밖에 《사변록》, 《통설》, 《도덕경주》, 《서계집》 등이 있다.

* * *

야 화

# 금강산 팔선녀

먼 옛날 한 나무군총각이 금강산의 구룡동에 살고있었다. 그는 살림이 어려워 늘 땔나무를 해다 팔았다.

하루는 깊은 숲속에서 나무를 하는데 갑자기 사슴 한마리가 나타나 놀란 눈으로 총각을 올려다보았다. 뒤미처 사냥군이 쫓아올라오고있었다.

총각은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사슴을 나무단속에 숨겨놓았다. 숨가삐 뛰여올라온 사냥군이 물었다.

《여보게, 총각, 사슴이 뛰여가는걸 못 봤나?》

《아, 방금전에 저쪽 등성이로 넘어갔수다.》

사냥군은 총각이 가리키는쪽으로 달려갔다. 얼마후 나무단속에서 나온 사슴은 총각에게 머리숙여 감사의 뜻을 표하고나서 사람처럼 이렇게 말했다.

《나를 살려준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으면 좋으리까? 보아하니 나이는 들었어도 아직 총각같은데 좋은 수를 하나 대드리오리다.》

그러면서 아무날 상팔담에 가면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하겠는데 그때 숲속에 숨었다가 날개옷 하나를 감추고 그 선녀와 짝을 무으라고, 아들딸 셋을 보기 전에는 절대로 날개옷을 내주지 말라고 당부하고는 가버렸다.

그래서 총각은 사슴이 말한 날 상팔담에 올라가 숨었다가 선녀들이 목욕을 할 때 날개옷 하나를 걷어다 바위틈에 감추었다. 해가 저물 때까지 날개옷을 찾던 선녀들은 하는수없이 선녀 하나를 남겨둔채 하늘로 올라갔다.

날이 어두워 선녀가 어쩔바를 몰라할 때 나무군총각은 선녀에게 다가가 그를 동정하면서 자기 집이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 갈데가 없으면 묵어가는것이 좋겠다고 권하였다. 이렇게 되여 선녀는 총각의 집에 왔고 그들은 부부가 되였다.

어느 사이 행복과 기쁨속에 세월은 흘러 그들에게는 아들과 딸이 태여났다. 남편은 이제는 안해에게 날개옷을 주어도 다른 일이 없으리라 여기며 실토정을 하고 날개옷을 돌려주었다.

날개옷을 받은 안해는 갑자기 하늘세상이 그리워졌다. 하늘로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게 된 그는 날개옷을 입고 아들딸을 겨드랑이에 낀채 하늘로 날아올랐다.

이리하여 외토리가 된 남편은 한탄과 슬픔속에 모대기며 한밤을 지새웠다. 이튿날 그앞에 나타난 사슴은 내가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 날개옷을 주지 말라고 하지 않았는가고 안타까와하면서 이제는 선녀들이 상팔담에 내려오지 못하고 드레박으로 물을 길어올려다 목욕을 하니 당신은 상팔담에 가있다가 드레박이 내려오면 그것을 타고 올라가라고 하였다.

그는 사슴이 시키는대로 하여 하늘에서 안해와 아들딸을 만났다. 그러나 차츰 하늘세상에 싫증이 났다. 철따라 꽃이 피고 록음이 우거지고 열매맺고 단풍이 지며 백설이 뒤덮이는 금강산에서 제손으로 땀흘려 농사지으며 살아온 지난날들이 못 견디게 그리워났다.

그래서 그들 부부는 하늘세상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아들딸을 데리고 다시 금강산에 내려와 부지런히 일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 * *

# 6.15통일시대는 다시 이어져야 한다

지금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온 겨레의 기대는 날이 갈수록 더욱 높아가고있다. 진정으로 북과 남의 화해와 민족의 단합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겨레의 기대에 맞게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애국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6.15통일시대를 다시 이어나가는것이다.

6.15통일시대를 다시 이어나가는것은 조국통일문제의 본성으로부터 제기되는 필수적요구이다.

반만년동안 한강토에서 한피줄을 이어온 북과 남은 외세가 강요한 분렬의 비극을 가시고 통일을 위해 손잡고 함께 나가야 할 운명공동체이다. 비록 수십년동안 지속되여온 분렬로 하여 북과 남사이에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존재하고있지만 그것이 결코 뛰여넘지 못할 장벽은 아니며 더우기 동족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근거로는 되지 않는다. 70년에 달하는 민족분렬사는 동족사이의 반목질시가 우리 민족에게는 헤아릴수 없는 피해를 끼치는 반면에 침략적인 외세에게는 어부지리를 준다는 심각한 교훈을 새겨주었다.

북과 남이 조국통일이라는 공통된 지향을 위해 뜻과 힘을 합치는 바로 그 길에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 그로부터 여러해동안 파국의 악순환을 거듭하는 북남관계를 끝장내고 좋은 분위기를 적극 살려 대화와 협력의 넓은 길을 활짝 열어나가자면 뭐니뭐니해도 6.15통일시대로 가야 하며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 서야 한다.

6.15통일시대를 다시 이어나가는것, 바로 여기에 자기 민족을 우선시하고 중시하는 민족중시의 정신과 자기 민족의 무궁무진한 힘에 대한 확신이 있다.

현시기 북남관계를 개선하는데서 필수적인것은 자기 민족의 힘을 믿고 모든 문제를 자기 민족에게 의거하여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지는것이다.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자면 동족을 덮어놓고 의심하고 적대시하는 낡은 관념부터 대담하게 털어버리고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서 화해와 단합을 적극 지향해나가야 한다. 자기 민족을 믿고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자는 관점만 투철하면 북남사이에 풀지 못할 그 어떤 문제도 없다.

사대와 외세의존을 반대배격하는것은 6.15통일시대를 다시 이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사대와 외세의존이 망국의 길이라는것은 곡절많은 우리 민족사가 명백히 보여주었다.

미국은 우리 나라를 북과 남

으로 갈라놓은 장본인이며 북남사이의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고 동족대결을 격화시켜 대조선침략야망을 실현하려고 음흉하게 책동하고있는 악의 원흉이다.

미국은 우리의 주동적인 조치로 지난해에 북남관계개선의 유리한 분위기가 마련되자 이에 대해 불안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면서 국무성과 국방성의 고위관리들을 련속 파견하여 남조선당국자들과 《대북정책조률》놀음을 벌려놓고 남조선과의 《동맹이 굳건하다.》느니, 《긴밀한 협력》이니 하며 떠들었다. 지어 북남관계개선움직임에 대해 《비핵화과정에 지장이 되는것을 우려》한다고 하면서 로골적인 불만을 표시하였다. 미국이 그 누구의 《탄도미싸일위협》에 대한 《공동대응》을 운운하면서 남조선당국을 저들의 미싸일방위체계에 깊숙이 끌어들이려 하는것이나 반공화국삐라살포를 적극 뒤받침해주고있는것 등은 그러한 기도의 발로이다.

북남관계가 완화의 길에 들어설 때마다 흉악한 간섭의 마수를 뻗치면서 온갖 방해책동을 일삼아온 미국에 계속 추종한다면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의 자주적통일은 언제가도 이룩할수 없다.

민족의 단결된 힘은 무궁무진하며 제아무리 횡포한 외세도 그것을 당해낼수 없다. 자기 민족의 힘에 대한 확신만 투철하다면 모든 문제를 자기의 주견과 신념에 따라 풀어나가려는 립장이 생기게 되고 외세의 간섭과 압력도 얼마든지 물리칠수 있다.

6.15통일시대로 다시 이어지는것, 바로 여기에 북남사이의 신뢰와 단합을 도모하여 관계개선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갈수 있는 출로가 있다.

윤홍기

# 체제전복을 노린 심리모략전

세계를 제패하려는것은 미국의 변함없는 야망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미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그중의 하나가 반동적사상문화침투를 통한 심리모략전이다.

제2차세계대전이후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문화적침투의 작용을 중시하고 그것을 적극 활용하였다. 1946년 미국은 《풀브라이트법》을 내오고 처음으로 문화침투에 필요한 법적담보를 마련하였다.

이때부터 사상문화적침투는 미국의 대외침략을 실현하는 주요수법의 하나로 등장하였다.

미국은 가능한 모든 공간과 경로를 시종 놓치지 않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종교활동을 포함하여 서방의 가치관과 사상문화를 대대적으로 수출하여왔다.

그 나라 정치체제를 《독재체제》라고 헐뜯고 저들의 《생활관》, 《가치관》이 제일이라고 떠들면서 해당 나라 인민들이 자기 정부와 사회제도에 스스로 반기를 들게 하였다. 특히 자라나는 새 세대청년들을 물질로 유혹하거나 부패타락시켜 그들의 사상의식을 변질시키려 하였다.

청년들의 주의력을 색정, 부패타락한 향락과 도박, 깽을 주제로 한 영화와 도서 그리고 종교와 미신에로 이끌었다.

또한 민족들사이에 모순과 분렬을 조성시키고있으며 각종 류언비어들을 내돌려 정부에 대한 불만을 품게 하였다.

세 세기에 들어와 미국은 보다 교활한 방법에 매달리고있다.

정보수단들을 통제관리하면 다른 나라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통제할수 있으며 지배주의를 손쉽게 달성할수 있다는것이 미국의 타산이다.

미국은 인터네트를 통하여 미국식가치관과 부르죠아사상문화, 허위날조자료들을 대대적으로 류포시키고있다.

미국의 사상문화침투는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을 포괄하고있다. 여기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방송모략선전이다.

미국과 서방은 한때 이전 쏘련과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을 붕괴시키는데서 효과를 본 방송선전의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있다.

최근년간에만도 미국의 심리모략전에 의해 중동의 일부 나라들이 물먹은 담벽처럼 무너지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무혈혁명》, 《색갈혁명》이 일어났다.

이러한 심리모략전의 맛을 미국은 조선에서도 보려 하고있다.

1996년부터 개시된 자유아시아방송은 1997년부터 공화국을 대상으로 모략방송전파를 날리기 시작하였다. 지금은 방송프로에서 조선말방송이 큰 몫을 차지하고있다.

미국은 공화국을 방문하는 사사려행자들을 비롯한 여러 경로를 리용하여 공화국내부에 색정적인 도서들과 미신과 종교책들, 소형반도체라지오, 각종 기억매체 등을 들이밀려고 꾀하고있다.

뿐만아니라 공화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제압하기 위해 《인권》모략선전에 더욱 열을 올리고있다. 해마다 《인권보고서》를 발표하여 마치도 공화국에 《인권문제》가 존재하는듯이 그릇된 여론을 내돌리고있다. 그들은 자기 고향을 버리고 조국을 배반한자들까지 끌어들여 공화국의 《인권상황》을 날조하고 그것을 범죄시하면서 국제적인 여론을 확대시키고있다.

남조선에서 광란적으로 벌어진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도 미국의 묵인과 비호, 조종하에서 진행되고있다. 삐라와 미국돈, 유치한 물건짝들이 군사분계선전역을 포괄하는 넓은 지역에 대대적으로 살포되고있다. 어떤 때에는 120만장에 달하는 삐라와 2 250권의 불순종교선전물을 풍선에 매달아 공화국지역에 날려보내였다.

이것들은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비방중상하고 주민들을 유혹하기 위한 불순한 흉계를 실현하기 위한것이다. 바로 이 심리모략전에 미국의 일부 종교단체들이 가담하고있다.

현실은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자주권과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심리모략침투책동의 본질과 위험성을 꿰뚫어보고 그것을 철저히 짓부셔버려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사화

## 김시습의 총명

15세기 작가이며 철학가인 김시습은 빈한한 선비가정에서 태여났으며 어려서부터 시를 잘 지어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그가 어릴적에 솔잎에 맺힌 이슬을 보고 《솔잎에 맺힌 이슬은 푸른 바늘에 꿰인 구슬인양 하여라》라는 시를 지어 읊었는데 그 소문이 널리 알려져 마침내 궁중에까지 들어가게 되였다.

당시는 조선봉건왕조시기 학문을 장려하고 과학을 발전시킨 세종(1397년-1450년)이 임금의 자리에 있던 시기였다.

나어린 문장가를 불러들여 그의 재능을 본 세종은 시습에게 《다섯살문장가》라는 칭찬을 해주고 그에게 수십필의 비단까지 상으로 주었다.

그런데 세종은 이 나어린 문장가의 총명을 다시한번 보고싶어 상으로 내린 비단을 혼자서 가져갈수 있는가고 물었다.

임금의 말에 그자리에 있던 대신들의 얼굴에 일순간 놀라움이 비꼈다.

(저 어린것이 그 많은 비단을 어떻게 혼자서 가져간단 말인가. 어른들도 혼자서는 어림없겠는데.)

대신들이 이런 생각을 하며 룡상에 앉은 임금을 바라보는데 세종의 눈가에는 알지 못할 웃음이 비껴있었다.

그제서야 임금의 속내를 알아차린 대신들도 어린 시습을 호기심속에 말없이 지켜보았다. 한동안 아무 말없이 눈만 깜빡이던 어린 문장가는 비단필들의 량끝을 서로 이어매기 시작하였다.

얼마후 비단필들을 다 이어놓은 김시습은 비단필의 한끝을 자기의 허리에 감고 임금에게 고맙다는 하직인사를 하고는 대궐밖으로 총총히 걸어나갔다.

그가 걸음을 옮기는데 따라 비단필들이 풀려나가기 시작하였다. 이것을 바라보던 임금과

# 날조된 《강화도조약》

조선근대력사에는 세기를 두고 잊지 못할 사건들이 수없이 기록되여있다. 그가운데는 지금으로부터 139년전 일본침략자들에 의해 강요된 《강화도조약》도 있다.

돌이켜보면 일본은 1870년대초부터 《교섭》의 방법으로 조선침략의 문을 열어보려고 획책하였다. 하지만 조선정부의 완강한 항거로 저들의 기도가 파탄되게 되자 일제는 무력으로 조선을 정복하려고 1875년에 군함 《운양》호를 우리 나라 령해에 불법침입시켜 무장도발을 감행하였다.

그후에도 우리 나라의 섬에 함포들을 마구 쏘아대며 포대를 파괴하였고 민가에 불을 지르며 재물을 략탈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이것이 바로 일본침략자들이 도발한 《운양》호사건의 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침략자들은 《조선측이 일본에 대해 적대행위를 하였다.》고 생트집을 걸면서 1876년 1월 800여명의 군대를 태운 여러척의 군함을 강화도에 침입시켜 불평등조약을 강요해나섰다.

그들은 무력으로 조선정부를 위협하여 《조약》을 강요할 심산밑에 여러척의 배에 가짜대포를 만들어놓아 군함처럼 보이게 하였으며 인원수도 800여명이 아니라 수천여명이 타고있는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한 일본침략자들은 함포까지 쏘아대면서 《〈운양〉호에 끼친 손해배상을 내라.》, 《손해배상대신 조약을 체결하자.》고 조선대표를 위협공갈하였다. 그들은 만일 자기들의 요구가 실현되지 않으면 부득불 조선과 전쟁을 하는수밖에 없다고 최후통첩적인 압력을 가해왔다.

일본침략자들은 1876년 2월 조선봉건정부에 자기의 요구조건을 접수시키고 12개조항으로 된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를 날조하였다.

《강화도조약》은 일본에 일방적으로 치외법권, 《자유무역》과 관세면제권, 연해측량권 등 특권을 준 반면에 조선에는 예속적의무만을 들씌운 침략적이며 불평등한 조약이였다. 이 《조약》에 의하여 일본은 정치, 경제, 군사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조선에 침략의 마수를 직접 뻗칠수 있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는 점차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되는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강화도조약》은 우리 나라 력사에서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불평등조약인 동시에 미일침략자들의 조선침략을 위한 공모결탁의 첫 산물이였다. 당시 미제는 일본의 사무라이적호전성과 《미일화친조약》에 의한 종속관계 등에 주목하고 저들의 길잡이로 리용하기 위하여 일본은 《속히 조선을 침략》하여야 《중국을 반달형으로 포위》할수 있고 아시아에서의 《지도력》을 가질수 있다고 하면서 일본을 부추겼다. 미제의 이러한 부추김밑에 일본침략자들은 조선봉건정부를 무력으로 위협공갈하여 끝끝내 예속적이며 불평등한 《조약》을 날조하였던것이다.

그후 일본침략자들은 이 《조약》을 코에 걸고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깊숙이 침투하였으며 나중에는 무력으로 우리 나라를 완전히 강점하고 40여년동안이나 가혹한 식민지파쑈폭압통치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러 일본은 《강화도조약》에 의하여 조선의 그 무슨 《자주독립》이 《보증》되였다느니, 《일본은 쇄국조선의 한 모퉁이에 개국의 서광을 비쳐주었다.》느니 뭐니 하면서 저들의 죄행을 가리우려 하고있다.

《강화도조약》은 일본의 침략적인 파거와 현실을 세계앞에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조선일

---

대신들의 얼굴마다에 웃음이 어리고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찬탄의 소리들이 튀여나왔다.

성인이 되여 김시습은 금오산에 들어가 《금오신화》라는 단편집을 내놓아 우리 나라문학사상 최초의 소설문학의 한 페지를 장식하였다.

* * *



고 화

# 《옹천의 파도》

정선(1676년-1759년)은 인물화와 화조화도 잘 그렸지만 그가 제일 많이, 제일 뛰여나게 그린것은 산수화였다. 그는 조선의 자연을 자기의 독특한 화법으로 생동하게 형상하여 18세기 풍경화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사실주의화가였다.

정선은 산수화의 소재를 그 어떤 시문에서 찾아내거나 상상속에서 끄집어내여 그린것이 아니고 혹은 옛것에서 모방하여 그린것도 아니며 언제나 아름다운 조국산천을 탐승하면서 자기 손으로 실지경치를 그렸다. 하기에 그의 산수화들은 어느것이나 다 우리 나라의 명승지들과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친 고장 아니면 가까이 살면서 늘 보아온 곳의 풍치를 그린것이며 그 매 작품에는 지명이 꼭 씌여있다.

정선은 또한 기암절벽이 많은 금강산의 바위생김새에서 독특한 립체미를 찾아 그에 맞게 수직으로 힘있게 쭉쭉 내리긋는 화법을 창조하여 바위와 산의 질감과 량감을 잘 표현하였으며 높은것과 낮은것, 면과 선 등 서로 상반되는것을 강하게 대조시키는 대조수법을 능란하게 적용하여 묘사대상의 내용과 특징을 잘 살려냈다.

그는 또한 먹의 농담을 알맞게 정함으로써 자연미를 돋구고 화면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정선의 사실주의적인 창작태도와 그가 새 경지를 개척한 독창적인 묘사기법들은 그의 제자들인 심사정, 강희언, 김윤겸 등을 비롯한 수많은 화가들에 의하여 계승되고 더 발전되여 조선봉건왕조시기 풍경화분야에서 실경산수화가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옹천의 파도》는 애국적인민들이 우리 나라에 쳐들어왔던 일본침략자들을 바다속에 처넣은 옹천의 바다가 풍경을 그린것이다.

모란봉의 평화정　　　본사기자 최원철

평양의 자랑으로 일컬어오는 모란봉은 여름뿐아니라 겨울에도 그 경치가 아름다와 사람들의 눈길을 모으고있다. 산에도 나무우에도 하얀 눈이 수북이 쌓였는데 그속으로 우렷이 보이는 아름다운 평화정은 모란봉의 경치를 한껏 더해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ㄱ—482150
http://www.naenara.com.kp(조문, 로문)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